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2020.04 VOL.527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

상대의 마음을 얻는 특별한 기술

설득力

9 772671 930009 04
ISSN 2671-9304

월간 <교정>에서 소원도 풀고 간식도 먹고!

신청 코너

소원을 말해봐!

가족 또는 동료들과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이벤트가 있나요?
〈교정〉이 도와 드립니다!

교정이 쏜다!

자녀들에게 아빠를 자랑할 기회를 주세요.
월간 〈교정〉이 자녀의 학교, 학원으로 찾아가
맛있는 간식을 쏩니다!

신청 방법 간단한 사연을 적어 독자엽서 또는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주세요.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수시 응모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2020.04

4월호 〈교정〉의 테마는 설득력입니다. 말 속에 녹아있는 설득력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기도, 밀어내기도 합니다. 먼저 잘 듣고 잘 말하면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여코너 신청과 독자 의견 송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정 2020년 4월호(통권 527호) 64권 4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유튜브 주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웹진 주소 http://cowebzine.com/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잇다

04 인트로

06 테마
상대의 마음을 얻는 특별한 기술,
설득력

08 피플
대통령의 연설문을 쓴 작가 강원국

희망을 짓다

16 소원을 말해봐
집콕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20 즐거운 쉼표
내년을 기약하며, 전국 봄꽃 명소

내일을 열다

24 힐링타임
예술에 설득당했을 때 일어나는 일

26 심리학 열전
함께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28 보라미, 보드미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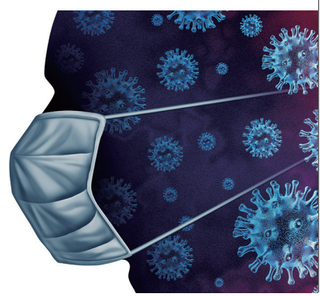
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정직 공무원의 고민상담소

32 맛남의 교정
조화로운 만남, 삼겹살 채소말이

34 방구석 1열
〈기생충〉 vs 〈신문기자〉 파헤치기

36 헬시라이프
발 지압으로 건강 챙기기

38 트렌드 이슈
팬데믹의 모든 것



42 전국 교정인 자랑
만만디 총각

44 TV 속 교정행정 이야기
예능도, 다큐도 다 되는
재미있고 진지한

46 희망의 백일장
기도로 용서를 구합니다

48 교정리포트

54 카드뉴스

56 NEWS
본부소식 & 일선기관 소식

63 모범공무원 소개

64 점 이어 그리기

66 칭찬합시다

알립니다 이번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교정이 쏜다'와 '열린 교정'은 쉬어갑니다.

도무지
말은 안 통하고
답답하다고요?

설득의 힘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생겨납니다.
내가 의도한 결론대로 이끌고 싶은 욕심만으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찬찬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우리는
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설득 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Persuade

설득의 노하우

상대의 마음을 얻는 특별한 기술, 설득력

답도 없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정답은 없다. 그러나 비결은 존재하는 법. 설득의 고수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설득'은 전문가들이나 하는 것일까. 설득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문도 있다고 하니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 '설득'은 그저 '전문용어'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설득의 연속임을 알 수 있다. 당장 우리가 일하는 현장만 살펴봐도 영업은 '사도록 설득하는 것'이고, 프레젠테이션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고, 클레임 대응은 '상대방을 납득시키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도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생은 설득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설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역사 속에서 설득의 노하우를 설파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키케로라는 인물을 만난다.

로마의 황금 혀, 키케로의 설득 3단계

키케로는 로마시대의 '황금 혀'라고 불리던 인물이다. 로마시대를 통틀어 가장 말을 잘 한 사람을 꼽으라면 키케로를 빼놓을 수 없다. 영어에 Ciceronian(시서로니언)이라는 말이 있다. '키케로(Cicero)처럼 장중하고 단아한', '키케로 풍의 문장가'라는 뜻이다. 키케로는 스스로 이런 단어의 어원이 될 만큼 명연설로 후세에 이름을 남겼다. 키케로의 설득법은 3단계로 요약된다.

1단계는 호감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당신이 설득해야 할 상대방이 당신을 싫어한다 해도 이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다. 상대가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읽어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 분명 상대는 당신에게 호의를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아직도 상대방의 호의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2단계로 넘어가면 안 된다.

2단계는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단계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언어 스타일을 통해 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같은 말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다. 평상시 관찰한 상대의 표현과 말투, 생각 등을 적절히 활용해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상대방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할 것인가? 키케로는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한다. 그 자리에서 승부를 보려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꺾는 것이 설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yes'는 오래가지 못한다. 돌아서서 변심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당신의 말이 진심임을 생각할 수 있게 여유를 주어야 한다. 결국 설득은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설득의 황금률, 설득하지 마세요

수많은 설득의 노하우가 회자되고 있지만 로마시대의 인물 키케로가 제시한 3단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약한 육체에 건강을 주고 두려운 마음에 평온을 주며 상처 난 신경에 힘을 준다."

이 엄청난 만병통치약의 이름은 '칭찬'이다. 버클리대의 언어학 교수를 역임한 찰스 필모어의 말이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는 키케로가 말한 '호감'을 확보하는 방법과 통한다. 그런데 이 칭찬에도 공식이 있다. 첫째, 나를 기쁘게 한 상대방의 행동을 언급하고 둘째, 그 행동으로 채워진 나의 욕구를 말하고 셋째, 욕구가 충족되어서 느끼는 즐거움을 말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네가 칭찬의 기술을 친절하게 설명해준 덕분에(상대의 행동) 사이가 안 좋던 친구에게 내 감정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채워진 욕구).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자신감이 생겼다(자신이 느끼는 즐거움)."

당신이 누군가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키케로의 2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말을 잘 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상대방의 마음을 쏙 빼놓는 유능한 비즈니즈맨들의 성공 뒤에는 '달변' 대신 '공감'의 능력이 숨어 있었다. 키케로의 3단계와 다르지 않다. 언제나 설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논리 대신 감성이 힘을 발휘한다. 설득력이 마음을 얻는 기술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래도 여전히 설득은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면 혜민 스님은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좋은지 설명은 할 수 있어도 말 안에 강요가 들어가면 설득 당하지 않습니다."

글 김지호 사진 류병문

마음을 움직이는 글다운 글, 말다운 말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연설문을 쓴 작가 강원국

설득이란 조직이나 국가처럼 큰 단위에서만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일에도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나 일상에서 설득의 기회가 잦다면,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더더욱 필요하다. 설득도 연습을 반복하면 잘 할 수 있게 될까?
그 무엇보다도 설득력이 필요한,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사람, 강원국 교수와 설득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설득 또는 공감, 말과 글의 목적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를 쓴 주인공 강원국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초빙교수는 세 권의 책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을 글쓰기의 매력에 빠지게 했다. 지난 2월부터는 KBS1 라디오에서 품격 있고 건강한 말, 대화의 방법 등을 전달하는 '말 같은 말'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설득'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이다. 들을 의지가 없는 이에게 무조건 이쪽 편의 이야기를 주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음을 연 사람에게 설득은 비교적 쉬운 일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쪽 모두에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강원국 교수는 "설득이란 원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타인의 머릿속에 내 생각을 집어 넣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남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글쓰기와 말하기의 목적은 설득 아니면 공감이라고도 했다. "이성적으로 설득하거나 감성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거예요."

'말 같은 말'에서 그는 '사람은 언제 설득되는가'에 대해 여러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득할 때, 나에게 분명한 이익 또는 손실이 있을 때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하는 사람이 누구냐다. 그는 나태주 시인의 〈마음을 얻다〉라는 시를 인용하며 존재 자체가 설득력인 사람이 있다고 했다.

"있는 것도 없다고 네가 말하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다고 네가 말하면 있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사람이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청산유수로 말하더라도 진정성이 없으면 무소용이다. 인간적인 매력은 마음의 벽을 허문다.

"사람들은 논리나 권위로 설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설득이 된 것 같다'는 착각만 일으킬 뿐 실제로 설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죠. 그런 걸 꼰대라고도 하잖아요." 설득의 주체가 중요한 이유다.

설득에는 기술도 필요하다. "A와 B 중 근거 없이 A를 권할 수는 없어요. 기준을 갖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걸 통해 A를 선택할 근거가 있음을 보여줘야죠."

누군가를 설득할 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결정은 온전히 상대의 몫이라는 점이다. 충분한 근거와 자료, 사례로 설득하는 동시에 결정권은 상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설득 이전에 설명이 있다. 유명학자의 이론을 인용할 수도 있고 화자의 경험을 녹인 내용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강원국 교수는 후자에 더 큰 힘이 실린다고 강조했다. 이해를 돕는 것은 공감이고 공감은 말하는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때 더 잘 일어난다. 강원국 교수가 진정성과 인간적 매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설득력 있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유나 비교, 분류를 활용한 적합한 표현으로 풀어내야 한다.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것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잘 표현할 능력도 중요하다.

그가 말에서도, 글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는 '키워드 뽑기'이다. '꾸준히 글을 쓰기 위해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첫째는 독서, 둘째는 토론, 셋째는 학습, 마지막은 메모(〈강원국의 글쓰기〉 중)'라는 식이다. 말하는 사람에게도 기억하기 쉽고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말하려는 바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와 동의를 얻으면 설득에 훨씬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틀이나 범주를 만드는 것 역시 설득의 도구입니다."

잘 듣는 기술도 필요하다

언제나 설득하는 처지일 수는 없다. 우리는 언제나 설득하는 쪽이었다가, 설득당하는 쪽이 되기도 한다. 강원국 교수 역시 많은 사람에게 설득당한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남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해요. 대체로 도움이 됐거든요." 타인의 말에서 좋은 면을 보려 노력하는 것이 답이다. 인터뷰 날에도 그는 배우자의 말을 듣고 좋은 일이 생겼다며 웃으며 말했다. "이사를 앞두고 있어 서재를 치우라기에 정리를 시작했어요. 덕분에 과거에 써두고 잊었던 원고 뭉치를 발견했죠. 새로 준비 중인 책에 넣을까 합니다. 일상이 그래왔어요. 항상 감사히 생각하며 누군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해요."

"서재를 치우라기에 정리를 시작했어요. 덕분에 과거에 써 두고 잊었던 원고 뭉치를 발견했죠. 새로 준비 중인 책에 넣을까 합니다. 일상이 그래왔어요. 항상 감사히 생각하며 누군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해요."

요즘은 코로나19로 멈췄지만 전국을 누비며 활발히 강연을 다니는 그다. 매번 다른 청중을 앞에 두고 마이크를 잡는데, 그 반응들이 각양각색이다. 열렬한 리액션으로 강연자를 더욱 힘이 나게 하는 청중이 있는가 하면 듣고 있는지 아닌지도 짐작하기 어려운 무표정한 얼굴의 청중도 있다. '내 강의에 설득력이 없나'하고 지레 불안을 느낄 만하다.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을 테다. 이때 화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태도 바꾸기가 아니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강의할 때 보면 어떤 조직은 표정이 없어요. 연단에 선 사람이 의기소침해질 수 있죠. 이제는 상처받지 않고 그들의 사정이 있을 거라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에 따라 상대의 반응을 수용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대의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돌파할 방법을 찾는 게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런 방법을 통해 상대가 내 쪽으로 돌아선다면, 설득하기 쉬운 내 편 하나가 더 생기는 셈이다.

그는 계속해서 잘 쓰는 법과 잘 말하는 법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오는 6월이면 새로운 책을 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번 책에서는 최초로 말하기에 관한 내용도 담는다.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말하기부터 연설, 발표 같은 공식적 자리에서의 말하기, 말씨와 말버릇, 경청 등에 대한 내용을 풍부하게 다뤘다. 설득을 더 잘하기 위한 기본 자료의 모음이랄까?

교정공무원에게도 설득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표정도 반응도 기대하는 효과도 얻기 어려운 대상을 상대할 때가 많다. 강원국 교수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지금처럼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 홍보실에서 일할 때 경험에 따르면 제 몫을 잘 하고 있을 때는 주위에서 홍보실의 역할을 잘 몰라줍니다. 일을 소홀히 해서 나쁜 기사가 나고 이를 어렵게 수습하면 그제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죠. 교정공무원의 일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교정시설에 관한 사건사고가 없다는 건 역할을 잘해주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몫을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설득의 예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다

설득력을 잃었다. 예술에서 이보다 더 치명적인 혹평이 있을까.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설득력을 잃은 예술은 무의미하다. 영화이든, 소설이든 예외가 없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비즈니스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성공한 예술, 성공한 비즈니스는 '설득의 예술'이라 불릴 만하다.

광고, 그 설득의 예술

CF

광고를 흔히 '15초 경제학'이라고 한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 상품을 사도록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광고가 돈 버는 기술에서 예술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아트 마케팅을 적극 도입하여 광고에 활용하고 있고 예술가들도 적극적으로 기업의 브랜딩 작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과 광고 사이의 경계선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예술과 콜라보로 광고 자체가 종합예술로 변모하면서 아트버타이징(Art-vertising)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Art와 Advertising의 합성어인데 예술이 광고의 핵심요소로 부상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용어이다.

국내에서 아트버타이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LG이다. LG전자는 이미 2007년부터 기업 PR 광고로 명화 시리즈를 도입해 화제가 되었다. 세잔, 고흐, 모네 등 명화 속에 자사의 제품을 배치시키고 "당신 생활 속에 LG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2015년 크게 화제가 된 SSG.COM의 '쓱' 광고도 예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소비자를 설득한 사례이다. 강렬한 화면 색감, 그림처럼 움직임 없는 남녀 모델, 건조하고 시크한 어조의 내레이션, 거기에 비트감 있는 사운드까지 모든 것이 신선했다. 미국 화가 에드워드 호퍼(1882~1967)의 작품을 오마주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광고는 한 기업의 미래까지 바꿨다. 론칭한 지 2년밖에 안 된 SSG.COM의 인지도를 '쓱' 끌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광고가 온에어된 후 10일 만에 매출이 20% 뛰어올랐다. 지금까지도 소비자 설득에 대성공한 광고로 손꼽힌다.

광고에서 소비자를 설득하는 방식은 시대상을 반영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등장했던 광고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엔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처럼 감동 코드가 소비자를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 광고가 상품을 알리는 수단인 동시에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문화상품으로 대접받는 이유이다.

수많은 자극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만큼 광고 전략도 다양하고 치밀해져야 하겠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시대가 변해도 광고의 핵심은 '설득'이라는 점이다.

설득의 달인을 만드는 필살기, PPT

2017년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 연설 때였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말 그대로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음성으로 채워진다. 그런데 TV로도 생중계된 이날 시정 연설은 좀 달랐다. 역대 시정 연설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파워포인트(PPT)가 등장한 것. 30여 분 간의 시정 연설 내용에 맞춰 총 22장의 슬라이드 자료가 전파를 타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자칫 지루할 뻔했던 시정 연설이 파워포인트 덕분에 호소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프와 도표뿐만 아니라 감성적 이미지와 카피까지 더해져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로도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주 파워포인트가 등장했다.

국내 기업에서 파워포인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990년대 말 무렵이다. 이후 '회의의 꽃'으로 불리며 전성기를 누렸다. 화려한 영상과 그래픽 이미지를 총동원한 '예술'적 파워포인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대충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았기 때문에 회의나 연설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을 때 꼭 써야 할 필수템으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파워포인트의 달인'이라는 말은 '능력있다'는 말과 같았다. 그

런데 파워포인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만드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이다. 웬만한 파워포인트의 달인들도 며칠 밤을 새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도입했는데 도리어 업무에 부담 주고 있었다. 게다가 파워포인트는 상대방에게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때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려다 보니 핵심 내용은 빠지고 알맹이 없는 자료가 되기 일쑤였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파워포인트의 사용을 금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2008년부터 파워포인트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당시 와타나베 사장은 원가절감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옛날에는 종이 한 장에 기승전결의 내용을 제대로 정리했지만 지금은 뭐든 파워포인트로 한다. 종이 매수도 많다. 총 천연색 컬러 복사를 많이 사용해 낭비를 하고 있다."며 파워포인트 사용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아마존, 페이스북 등도 파워포인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대카드가 2016년 가장 먼저 파워포인트 사용을 포기했고 두산그룹도 2018년부터 파워포인트 사용 관행을 바꾸었다.

천만영화 흥행을 좌우하는 키워드, 설득

'흥행에 성공한 영화'의 다른 말은 '관객 설득에 성공한 영화'이다. 영화의 흥행이란 기본적으로 대중 설득이기 때문이다. 대놓고 "우리 영화가 재미있으니 보러 오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대중이 실제로 영화를 보게끔 설득해야 한다. 그 설득 방식에 공감하면 영화는 흥행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언론에 여기저기 노출되고 온갖 곳에 포스터를 붙이는 방식만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영화 자체가 관객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실패는 불가피하다. 결국은 콘텐츠로 관객을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흥행 영화들은 영화에 설득당한 초반 관객들의 입소문이 주효했다.

설득의 기술은 모든 잔가지를 다 쳐 내고 나면 '이해▶공유▶차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남는다. 이는 영화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황금률이다. 관객을 설득하고 싶다면 '이해하고 공유하고 차이점을 보여야' 한다. 〈숨바꼭질〉을 예로 들어보자. 이 작품은 관객들이 사회의 양극화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와 낡은 아파트라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불안의 정서를 공유한다. 결정적으로 영화는 내 집에 누군가 숨어 들어올 수 있다는 설정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공포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는 내 집에 정체 모를 누군가가 숨어들어 살고 있다는 가정은 관객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결정적 한방이 되었다.

Movie

이런 공식에서 비껴나가 대중 설득에 실패한 영화도 있다. 〈미스터 GO〉가 대표적이다. 거칠게 내용을 요약하면 '고릴라가 야구하는 영화'이다. 고릴라가 야구하는 매 장면의 기술적 완성도는 뛰어났다. 그런데 왜 참패했을까. 고릴라가 야구를 하는 스토리가 참신해 보일 것이라고 여긴 것이 패착이었다. 아무리 참신한 스토리와 정교한 3D가 뒷받침 된다 하더라도 '야구는 사람이 해야 재미있다'는 관객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득력은 힘을 잃는다.

관객들이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그것이 너무 생소해서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낯선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아바타〉는 매우 영리한 방식으로 관객을 설득했다. 우선 아바타라는 에이전트(agent)를 등장시켰는데 이 존재는 매우 독창적인 요소이기도 했지만 인터넷 공간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매우 공감 가는 존재였다. 또한 나비족의 행성 판도라의 생태계는 마치 〈쥐라기 공원〉에서 보았던 것 같은 기시감이 있다. 판도라 행성의 할렐루야 산과 영혼의 나무는 〈반지에 제왕〉에 나왔던 신비의 산과 닮아 있다. 나비족을 파괴하는 로봇은 〈터미네이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보인다. 가상의 세계로 진입하는 방식도 〈매트릭스〉와 크게 다르지 않고 나비족들이 공중을 유영하는 모습은 〈해리포터〉가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과 흡사하다. 〈아바타〉는 '외화는 천만 관객을 동원할 수 없다'는 한국 영화 시장의 불문율을 깬 최초의 영화로 영화사에 기록을 남긴 작품인만큼 그 설득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영화를 볼 때 내가 어떤 점에 설득 당하고 있는지 느끼면서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글 양지예 사진 김도형

집콕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선물합니다!

안양교도소 강정훈 교위 가족

제법 햇살이 따사로워지고 한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마음이 괜히 설렌다. 여느 해 같으면 산으로 들로 꽃놀이 행렬이 줄을 이을 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집콕'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안양교도소 강정훈 교위 가족도 국가적 재난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딸 세이는 개학이 미뤄지면서 단조롭고 따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주말에는 하루 온종일 좋아하는 것만 하며 지내는 것이 소원이라는 세이. 외출은 힘들지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바이러스가 팡팡 터지는 강정훈 교위 가족의 하루를 들여다본다.

집 안에서 즐기는 피자 파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정지됐다. 특히 아이들의 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결국 온라인 개학하며 학생들도 부모도 집 안에만 있는 생활에 지쳐가고 있다. 강정훈 교위의 딸 세이도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겨울방학 때부터 몇 개월째 집에서만 일상을 보내고 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겨울방학 때부터 세이가 낮에는 집에 혼자 있어요. 개학해서 학교에 다니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겨울방학이 연장되면서 지금도 세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같이 있어주지 못 해 미안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외출하기도 힘들어서 뭔가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벤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이의 일상은 단조롭다. 아빠엄마가 출근을 하고 나면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놀고 점심을 챙겨먹는다.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 수도 없고, 평소처럼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도 없으니 항상 똑같은 일과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은 어려서 부모님에게 투정부리고 떼를 쓸 만도 한데 세이는 항상 밝고 씩씩하다. 누가 보지 않아도 아빠엄마와 정한 규칙도 잘 지키고 공부도 스스로 잘 한다고 하니 정말 대견하고 기특하기만 하다.

이런 세이를 위해 아빠가 준비한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피자 파티! 주말을 맞아 세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치즈피자를 먹으며 가족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평소에는 엄마가 직접 피자를 만들어 주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이가 좋아하는 가게에서 치즈를 듬뿍 넣은 피자를 주문했다. 아빠엄마는 세이가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지 피자를 먹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원래 쉬는 날이면 체험학습도 하고 도서관에도 가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힘들어서 이렇게 세이가 좋아하는 피자를 먹으면서 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4월 말쯤 가족끼리 캠핑을 가려고 계획했는데 그 때쯤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될까요?" 캠핑을 가든 집에 있든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일까. 세이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하다.

책 읽는 가족

피자로 두둑이 배를 채운 세이에게 아빠가 두 번째 선물을 공개했다. 바로 열권으로 구성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동화책이다. 공자, 소크라테스, 셰익스피어, 피카소 등 동서양의 철학자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엮은 책으로, 아빠가 딸을 위해 고심해서 고른 책이다. 갖고 싶은 선물 1순위로 책을 꼽았다는 세이는 아빠가 선물한 책 꾸러미를 펼치자마자 평소 좋아하는 위인 정약용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펼쳐 들고 푹 빠져 몰입해 읽기 시작했다.

"저희 부부는 세이를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책 읽는 습관만 길러주면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강요하기보다 독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확고한 육아목표 덕분일까. 아빠엄마의 바람대로 세이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 세이가 어릴 때부터 부부가 항상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강정훈 교위의 집 안 곳곳에 책이 빼곡하게 쌓여있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까지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빌려오는 것이 가족들의 일상이기도 했다. 더불어 딸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1~20권의 책을 꼭 산다고 하니 집안 어디에서든 손만 뻗으면 책이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책을 한 질 샀을 때 세이가 30%정도 보면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샀을 당시에는 읽지 않아도 나중에 관심을 갖고 읽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요. 저도 살면서 책을 통해 많은 위안을 얻었듯이 세이도 크면서 마음이 힘들거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책으로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이런 마음을 아는 것일까. 세이는 '책 읽는 것이 너무 좋은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공부할 게 많아져서 시간이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책만 있으면 집 안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다는 세이의 모습이 천진난만하다. 모두들 지쳐가는 지금, 가족들은 코로나19의 여파를 잘 이겨내고 있는 듯싶었다.

"저희 부부는 세이를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책 읽는 습관만 길러주면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강요하기보다 독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주말 오후, 가족들이 거실에 나란히 배를 깔고 누워 책을 보며 평화로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몇 권의 책을 내리 읽던 세이가 몸이 찌뿌둥한지 일어나서 아빠에게 뭐라고 속닥대기 시작했다.

"집 앞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저번 주부터 체육공원에 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세이네 학교가 특성화 학교다 보니 3학년 때부터 생명수영이랑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우는데, 미리 배워두면 자신감도 붙고 낯설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정훈 교위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인라인을 타기 위해 외출 준비를 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던 세이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물론 건강을 위해 마스크는 필수!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다가 야외로 나가니 기분이 좋은지 세이의 발걸음이 가볍다. 체육공원에 도착하자, 강정훈 교위는 벤치 한켠에서 세이가 보호대를 착용하고 스케이트 신는 것을 도왔다.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세이가 아빠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 아빠에요. 밖에서는 나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멋진 교도관이고, 집에서는 이렇게 저랑 잘 놀아주니까요. 오늘 아빠엄마랑 피자도 먹고 책 선물도 받아서 최고로 행복한 날이에요." 세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

"세이가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라면 공부를 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최우선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좀 안정화 되면 가족들과 꼭 캠핑을 가고 싶어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평소 교도관인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는 세이, 아빠엄마와 함께 한 오늘 하루가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기대해본다. 주말엔 '좋아하는 것만 하며 지내고 싶다'는 세이의 소원도 미션 완료!

'소원을 말해봐' 코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독자엽서 또는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신청해 주세요.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드립니다.

글 · 사진 김수진

빼앗긴 봄에도 꽃은 피어나고

내년을 기약하며, 전국 봄꽃 명소

2020년 봄, 세상은 '잠시 멈춤' 상태다. 비록 사람들은 잠시 일상을 멈췄지만 자연은 묵묵히 본연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겨울을 이겨낸 봄이 찾아 왔고 여기저기 꽃은 피어오르고 있다. 전국 곳곳의 꽃축제는 취소됐어도 와글와글 봄꽃은 피어오른다. 나와 모두를 위해 올해는 먼 곳으로의 꽃구경은 삼가고 가까운 곳으로 잠시 나가 봄꽃을 바라보자. 이 봄을 빼앗긴 게 못내 억울하던 찰나, 봄꽃을 보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

봄날의 황홀경, 강릉 경포대 벚꽃

"맑고 잔잔한 호수가 큰 소나무 숲속에 한껏 펼쳐져 있으니 / 물결이 너무나 잔잔하여 물속 모래알까지도 헤아릴 만하구나 / 한 척의 배를 띄워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 강문교 넘은 곁에 동해 바다로구나."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경포호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칭송했다. 그 경포호의 아름다움이 최절정에 달하는 때가 바로 4월 초다. 경포호 주변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면 한 폭의 수채화가 완성된다. 경포호 벚꽃은 호수와 정자로 운치를 더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호인 경포호는 거울처럼 맑은 호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경포호를 따라 수령 100년 된 고목부터 아직은 앳된 나무까지 많은 벚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 소담스러운 벚꽃은 햇살 아래 한 번, '거울처럼 맑고 잔잔한' 호수 위에서 또 한 번 영롱하게 빛난다. 한 번 접하면 끊지 못할 황홀경을 선사한다. 여기에 경포호 북안에 자리한 누각 강릉 경포대(보물 2046호)가 풍경에 방점을 찍는다. 1326년 창건 이후 한 차례 이건한 경포대는 예부터 많은 시

❶ 국내 최대 동백 군락지인 천관산 동백숲
❷ 노란 물결 일렁이는 삼척 맹방 유채꽃밭
❸, ❹ 봄꽃이 활짝 핀 개심사 풍경
❺ 봄날의 경포대 벚꽃

인 묵객이 찾아 자연 풍광을 즐기고 학문을 닦던 명소로, 지금도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경포호 벚꽃 구경에 나섰다면 꼭 경포대에 올라 벚꽃과 호수가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해보자. 관동팔경 제1경이라는 경포대의 가치를 단번에 깨닫게 된다. 특히 밤 풍경도 놓치지 말 것. 하늘에 뜬 달, 호수에 잠긴 달, 바다에 비친 달, 술잔에 빠진 달, 님의 눈동자에 비친 달. 이렇게 다섯 개의 달이 뜬다는 경포대 아니던가. 4월의 봄밤에는 다섯 개의 달에 벚꽃이 더해지니 이보다 더 낭만적일 수는 없다.

Tip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4월 초 개최 예정이던 경포 벚꽃 축제가 취소됐다. 강릉시는 개별 방문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올해 경포 벚꽃 구경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했다. 즉 경포대 일대 부분 통제를 통해 차량만 이동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품격 있는 꽃구경, 서산 개심사 겹벚꽃 & 청벚꽃

충남 서산의 개심사는 본디 소박한 절집이지만 봄날만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몽글몽글 탐스러운 겹벚꽃과 신비로운 푸른빛의 청벚꽃이 고찰을 화려한 봄빛으로 물들인다. 백제 의자왕 때 혜감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개심사는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다. 조선 성종 15년에 고쳐 지었다는 대웅전은 다포양식을 취하며 보물 143호로 지정되어 있다. 다른 계절에는 대웅전이 가장 중요한 볼거리가 되겠지만 봄에는 좀 다르다.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는 겹벚꽃과 청벚꽃에 먼저 눈이 갈 수밖에 없다. 겹겹의 꽃잎이 뭉친 겹벚꽃은 일반 벚꽃보다 꽃송이가 크고 풍성하다. 하양, 연분홍, 진분홍 등 빛깔도 다양하다. 아기 주먹만 한 꽃송이가 나무마다 복슬복슬 만개하면 그 아름다움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다.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은은한 푸른빛의 청벚꽃은 개심사 꽃구경의 하이라이트다. 빛깔만 달리했을 뿐인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청벚꽃은 분홍빛 벚꽃의 로맨틱한 느낌 대신 싱그러운 분위기로 매혹한다. 개심사 겹벚꽃과 청벚꽃은 일반적으로 4월 하순에서 5월 초 만개한다. 일반 벚꽃 개화 시기보다 늦으니 혹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다면 늦은 벚꽃놀이를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볼 만하다. 차로 15분 거리에 역시 겹벚꽃으로 유명한 문수사도 있으니 꽃구경 코스로 그만이다.

붉은 카펫 위를 사뿐사뿐, 장흥 천관산 동백숲

천관산은 호남 5대 명산으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해 많이들 찾는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나라 최대 천연 동백 군락지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많이들 모른다. 20만㎡에 이르는 천관산 동백숲은 단일 수종으로 천연 숲을 이루고 있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숲에 들어서면 동백 잎이 빼곡해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인위적으로 정돈하지 않아 원시림 분위기가 고스란히 살아 있다. 이곳의 동백꽃은 보통 4월 초순에 절정인데 올해는 조금 빨리 꽃을 피웠다. 동백꽃은 나무에 매달린 채로 한 번, 땅에 떨어진 채로 또 한 번 감동을 준다. 그러니 개화 절정기를 지나 동백숲을 찾아도 즐겁다. 천연의 숲속에서 군데군데 무심히 떨어진 빨간 꽃잎이 마음을 간질인다. 동백숲 안에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가마터도 여러 곳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동백나무로 숯을 만들어 팔던 흔적이다. 숲속을 걸은 후에는 상부 전망대에 올라 숲 전체를 한눈에 담아보자. 햇살 좋은 날이면 반질반질한 동백 잎이 끝없이 반짝거린다. 붉은 동백꽃만큼 초록빛 동백 잎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깨닫게 된다.

노란 꽃길을 걸어요, 삼척 맹방 유채꽃

한쪽으로는 쪽빛 바다가, 다른 한쪽으로는 핑크빛 왕벚나무길이 펼쳐진다. 그 사이에 노오란 유채꽃 물결이 일렁인다. 해마다 봄이면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일대에는 7ha 규모의 유채꽃 향연이 펼쳐진다. 드넓은 유채꽃밭 사이로 난 산책로를 걷노라면 문자 그대로 '꽃길만 걷는' 기분이다. 노란 유채꽃밭에서 상춘객의 마음도 봄으로 물든다. 삼척 맹방 유채꽃밭은 바다와 벚꽃을 양옆에 끼고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시기만 잘 맞추면 2.5km 길이에 늘어선 왕벚나무길도 걷고 유채꽃밭도 거닐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여기에 시원한 바다 구경이 덤이다.

Tip 해마다 꽃이 만발하는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유채꽃 축제를 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제를 취소했다. 유채꽃밭이 워낙 넓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개별 방문은 허용한다.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0선〉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봄꽃 명소보다 집 주변 가까이서 소소한 봄꽃을 즐기는 색다른 지혜가 필요하다'며 봄 꽃길 160선을 소개했다. 도심 공원부터 가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을 총망라했으며 꽃 종류도 벚꽃, 이팝나무, 유채꽃, 개나리, 진달래, 야생화, 튤립, 라벤더 등 다양하다. 봄 꽃길 160선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story/springflower)와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 임지영 (아트위드 대표/예술 칼럼니스트)

민해정수 〈SACRIFICE.희생〉

예술에 설득당했을 때 일어나는 일

봄이 왔지만 아직 마스크 속입니다. 세상도, 사람도 경계하다 보니 계절마저도 쉬이 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의 지혜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요. 봄이 오려면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듯이, 꽃이 피려면 간절한 시간을 버텨야 하듯이, 우리는 때로 견디고 버티며 기어코 삶을 피워냅니다. 각양각색 생의 꽃밭을 만듭니다. 저마다 색도 모양도 향기도 제각각이지만 우리는 함께 어우러집니다. 서로의 꽃송이를 만나고 열매를 나눕니다. 아름다움의 비교도 판단도 할 것 없지요. 저마다의 고유한 인생향과 가치를 품은 나도 꽃이니까요.

얼마 전 작은 그림을 한 점 구입했답니다. 민해정수 작가의 〈SACRIFICE.희생〉. 마치 커다랗게 빛나는 별처럼 샛노란 호박꽃이 가슴 속에 노란 불을 탁 켜주더라고요. 호박꽃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꽃, 어머니 꽃이래요. 그래선지 단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둔 밤 유난히 반짝이는 별빛처럼 기분 좋은 희망이 마음을 밝혀주었지요. 그림이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자, 자, 힘내라고! 꽃처럼 피어나 별처럼 빛나라고! 우연히 만난 작가가 꽃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 이 작품 그릴 때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좋은 기운이 담뿍 담긴 그림이라 누가 가져가실까 했는데…
– 제가 행운을 안았네요! 보자마자 반했거든요.

모든 예술은 설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해주는 본질을 지니고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음악을 들으며 울어버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밤새 읽으며 가슴을 덥히던 소설, 무릎을 탁 치게 한 시 구절들. 그리고 어느 전시장에서 마주친 강렬한 그림 한 점.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며 심장 어디께를 따뜻하게 물들이지요. 예술적 자극에 흔들리는 그 마음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합니다. 가없는 번짐이 기어코 나를 뜨겁게 합니다. 예술에 매혹된 나는 그전과 달라진 시선을 갖게 됩니다.

첫째, 세상을 보는 눈이 유연해집니다. 예술이 주는 의미, 재미, 함의를 찾아보려는 나의 눈은 커지고 밝아집니다. 구석구석 보고 느끼고자 한다면 미운 그림은 하나도 없지요. 예술의 범주가 넓어지는 만큼 나의 시야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을 사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난해한 컨템포러리 아트도, 미디어 아트도 새로운 경험, 즐거운 축적이 되지요. 작가의 사유까지 더듬어 가늠해보며 나의 마음은 한결 여유롭고 편안해집니다. 예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요.

이런 유연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어떤 일이 닥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요. 어떤 일이나 상대에 대한 나의 배려와 진심은 금세 전해지고 그것은 서로 통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따뜻한 시선에서 말미암은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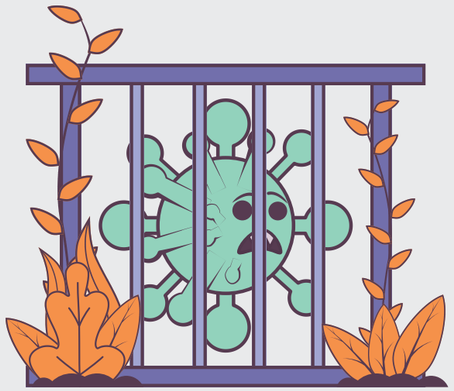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극에서 살아가지요. 어떤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할지, 상처받을지 툭 털어버릴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 자극을 받고 감흥을 일으킬지 무감각할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호들갑스럽고 유난 떠는 것이 싫어서 점잖고 무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중하지 뭣이 중한디!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너무 빠르던 인생에서 잠시 멈춰서는 것. 가만히 샛노란 호박꽃을 응시하는 것. 내 시선에 봄볕 같은 온기를 더하는 일입니다. 내 삶에 봄꽃 같은 의미를 가꾸는 일입니다. 마스크 안의 숨결에 그야말로 봄이 피어오르는 일입니다.

글 이정미(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 〈심리학이 나를 안아주었다〉 저자)

You never walk alone

함께일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위험에 처했고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를 팬데믹(Pandemic)이라 선언했다. 세계 증시는 폭락하고, 각국은 더욱 단단하게 문을 걸어 잠갔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대다수 국가는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려는 노력보다 도시 봉쇄라는 선택을 했다. 인종 간, 지역 주민 간 혐오와 차별이 극렬하게 드러났고, 사람들은 화장지와 마스크를 두고 몸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이런 패닉, 봉쇄, 혐오, 차별, 싸움은 먼 유럽과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이다.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강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혼자서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불안이 앞서지만, '우리'일 때는 어깨를 펴게 되는 것, 바로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이다. 개인적인 성향의 서양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고 같은 아시아인이라 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은 특히 '우리 의식'(심리학자들은 이를 'we-ness'라 칭한다)이 강한 것 같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험은 되도록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시련이지만,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게 된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에서 사재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나보다 내가 속한 사회 속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게 당연시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백안시하는 이유. 한국을 가리켜 '참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서양 언론의 감탄 어린 시선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독특한 우리만의 '우리 의식', 즉 연대감과 연결감이다.

지금처럼 지구인 모두가 위기에 빠진 글로벌 팬데믹 사태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백신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웃과의 연결감, 우리가 하나라는 연대감, 즉 공동체 의식일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기를 쓰고 따라오려고 해도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우리 민족이 가진 최대의 강점,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 말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좀 더 큰 경계를 갖는 커뮤니티와 연결감을 느끼며 사회적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행복하고 기대수명 또한 더 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돌아보니, 한국인이야말로 이런 점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인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솟는다.

역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소속된 단체나 조직과 자신을 연결하여 일체감을 느낄수록 사회적 교류가 늘고 애정이 쌓인다. 이는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고 능력 또한 충분치 않지만, 공동체로 뭉칠 때 힘은 강력해지고 서로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기에 문제해결력 역시 상승하고 만족감은 한껏 고양된다.

역사적으로 국난에 임한 상황을 한국이 잘 극복해왔던 것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토록 건강한 시민의식과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국민이 보여주는 상호 간 신뢰와 연결감 및 유대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귀한 자질로서, 세계 여러 긍정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실존주의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행복은 마냥 따뜻하고 배부르고 즐거워야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삶의 시련과 역경, 고통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다디단 순간이 아니라 쓰디쓴 고통 후에야 경험되는 신이 주는 선물일 것이다.

요즘처럼 공동체가 중요해지는 때에는 개개인으로서의 물질적 안녕과 정서적 안녕은 다소 낮더라도,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안녕과 영적 안녕이 높다면 더더욱 시련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살아갈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단순한 물질적 쾌락과 정서적 만족을 넘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희망을 읽어낼 줄 아는 이들,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긴 안목과 넓은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많은 사회야말로 지혜와 영성을 필요로 하는 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You never walk alone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때다.

보라미, 보드미와 함께

그림 유용필

우리 동네에 교정시설이 들어온대!

글 신예희(프리랜서 작가) 정리 편집실

"좋은 가장, 좋은 아빠가 되기 어렵네요"

교정직 공무원의 고민상담소

교정직 공무원으로 살면서 느낀 어려움, 스트레스가 있다면 익명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소한 고민이라도 월간 〈교정〉이 해결에 보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따뜻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고민 사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늘 주의하면서 퇴근 후에는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특히 주의 중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나이고 가족들 모두 활동적인 성격이라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키즈카페 데려가서 풀어놓기만 하면 충분했는데,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려니 아이들이 뭘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지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끊임없이 뭘 가져오고 보채요. 야간근무 후에는 저도 쉴 시간이 필요한데 틈을 안 주니 지치고 솔직히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제가 가사에 소홀하다고 서운해하는 것 같아 눈치가 두 배로 보입니다. 저도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아내가 만족할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로 약간 냉전을 겪어서 화해하자는 의미로 은근슬쩍 먼저 다가가 평소처럼 행동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는데 제 노력도 몰라주네요. 이젠 제가 더 서운합니다. 아이와 아내 사이에서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From. 가장은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가장은 처음이라'님. 반갑습니다.
살면서 요즘처럼 손을 꼼꼼히, 오랫동안 씻은 적이 있었던가요. 여러모로 뒤숭숭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무섭던 신종플루가 이젠 매년 찾아오는 좀 독한 감기 정도로 느껴지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몇 년 후엔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크고 작은 변화를 슬슬 기존의 일상에 포함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위생에 좀 더 신경 쓰고,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땐 마스크를 쓰고, 한 음식에 여러 명의 수저가 닿지 않도록 하고,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고, 검증되지 않은 괴상한 건강 정보를 믿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요.

…라는 것은, 이제부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 테니 서로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소리겠습니다. 그런데 남도 아닌 내 가족이 갑자기 버겁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스스로에게서 찾아봐야겠죠. 여기,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은 어땠나요? 선생님은 퇴근 후엔 어디서 뭘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사이, 육아와 가사는 누가 했습니까? 가정은 하나의 조직인데, 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큰 레이아웃을 그리고 작은 디테일을 챙겼습니까? 선생님은 가사 일을 '돕는다'고 표현하는데, 집안을 둘러보면 어떤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되나요? 혹시 매번 배우자에게 '나 뭐 해야 해?'라고 일일이 물어본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배우자의 머릿속은 365일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느라 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이들의 신발 사이즈는 각각 몇mm인가요? 키와 몸무게는요? 겨울철 내복은 몇 벌씩 있으며, 혹시 작아져서 새로 사야 하진 않습니까? 예방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한 치과 치료의 내용은요?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계십니까? 선생님의 아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던 때에도 이미 많은 것을 필요로 했고,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아이들이 대체 뭘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지 당황스러워하십니까? 그럼 그동안은

누가 아이들의 요구에 일일이 응했습니까?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면, 물색없고 앞뒤 없는 스킨십이 아니라 자신이 응당 해야 할 일을 생색내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돕는다'라는 표현은 남의 일에나 쓰는 것 아닙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없더라도 어차피 선생님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당연한 일을 하면서 왜 가족에게 생색을 냅니까?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게 너무 힘들다면, 그동안 묵묵히 그 일을 해온 사람에게 감사해하십시오. 그리고 이 변화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가정을 가꿔 나가자는 굳건한 의지라는 것을 배우자가 느끼게 하십시오. 믿음과 신뢰, 교과서 같은 재미없는 표현이지만 그게 답입니다.

<참여 방법>

어떤 사연이든 누군가와 상담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익명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또는 QR코드 응모 페이지로 받습니다. 이름과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말고 고민만 작성해 보내주세요.

채소와 삼겹살의 조화로운 만남

삼겹살 채소말이

아삭한 채소와 육즙 가득한 고기를 한입에 즐길 수 있는 삼겹살 채소말이. 생김새는 복잡해 보이지만 재료도 간단하고 무척 쉽게 만들 수 있다. 반찬으로도 좋고 간단한 술안주로도 적당한 요리다.

재료(2인 기준)

대패삼겹살 5장, 대파 5개(또는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등 취향에 맞는 채소), 된장 1큰술, 소금 · 후추 조금씩

조리 순서

❶ 대패삼겹살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하고 된장을 펴 발라 재워둔다.

❷ 대파는 씻어서 삼겹살 너비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른다.

❸ 삼겹살 위에 대파 흰 대와 푸른 잎을 함께 얹어 돌돌 만다.

❹ 달군 프라이팬에 대파를 만 삼겹살을 얹어 겉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돌려가며 굽는다.
*삼겹살에서 기름이 나오므로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된다.
*삼겹살 여민 부분을 아래로 두고 먼저 구우면 풀리지 않는다.

❺ 삼겹살 채소말이 완성!

Tip

각종 요리의 재료로 흔히 쓰이는 대파는

대파는 뿌리부터 잎까지 모두 쓰임이 있는 채소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에 도움을 주며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한다. 삼겹살과 매우 잘 어울리는 특유의 향과 매운맛 덕분에 대파는 각종 요리에 다채롭게 활용된다. 뿌리는 육수를 낼 때 쓰이기도 한다.

잎의 녹색이 균일하고 곧게 뻗은 것을 고른다. 뿌리 쪽은 무르지 않고 탄력 있는 것이 좋은 상품이다. 흐르는 물에 묻은 흙을 씻고 뿌리를 잘라 활용한다.

물에 닿으면 쉽게 상하므로 단기간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거나 적당한 크기로 잘라 냉동 보관해도 된다.

글 이영환

호평 맛집

〈기생충〉 〈신문기자〉 파헤치기

사회의 시퍼런 멍과 곪은 상처를 양분 삼은 기생충 같은 영화.
척박한 사회의 피와 뼈를 먹고 자란 〈기생충〉과 〈신문기자〉에 관한 이야기

핵심 메세지

봉준호 감독 "인간에 대한 예의를 어느 정도로 지키느냐에 따라 영화 제목처럼 '기생'이 되느냐, 좋은 의미의 '공생, 상생'이 되는지 달라질 것 같다." (국내 언론시사회 中 2019년 5월 28일)

심층 분석

사회/경제적 반지하 방에서 990원짜리 발포주를 즐겨 마시고 와이파이를 훔쳐 쓰는 기택의 가족. 이들의 삶은 걸고 기름진 국가의 상징인 G20 회원국이라는 위상과 걸맞지 않지만, 서양의 부자 나라들도 피부 색이 다른 '기택네'를 품에 안고 있다. "이 영화는 악인이 없으면서도 비극이고, 광대가 없는데도 희극이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을 통해 블랙 코미디와 다를 바 없는 양극화 문제를 다뤘고, 전세계적 사회 문제인 '양극화'에 공감한 이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영화적 〈신문기자〉가 뚝심 있는 메시지와 절제된 연출로 승부했다면 〈기생충〉은 강력한 유머와 완급조절의 미(美)를 장착했다. 유머는 청자의 경계심을 낮추고, 설득을 용이하게 하는 힘이 있다. 〈기생충〉은 한국 정서로 동서양 막론하고 웃음 적시타를 터뜨렸고, 많은 영화인이 이 부분에 열광했다. 또 하나, 이 영화는 안도와 긴장을 번갈아 가며 추락한다. 봉준호 감독의 이 완급 조절력과 세련된 연출은 호평의 핵심이다. 추락만 하는 롤러코스터가 피로한 건 누구나 알지만, 이것을 조절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전문 리뷰어 평가

"시의 적절한 메시지가 좋았다!"

-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칸 국제 영화제 심사위원장)** 우리에게 매우 긴급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 다룰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
- **짐 캐리(배우)** 우리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며 그를 지하에서 꺼내주고 싶은 마음을 다 느꼈을 것이다.

예측 불가, 긴장감에 반했다!

- **야마시타 노부히로(영화감독)** 가난한 가족이 부자 가족을 침식해가는, 뻔한 코미디인 것처럼 안심 시켜 놓고 터무니없는 곳으로 관객을 인도한다.
- **스콧 데릭슨(닥터 스트레인지 감독)** "올해 최고의 영화." 나의 16살 아들이 〈기생충〉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한테 한 말.

핵심 메세지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은 분명히 있다. 다들 습관적으로 침묵을 강요받다가 이제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다. (중략) 이 영화처럼 작은 물결을 시작으로 큰 파도로 퍼져나가길 희망한다." (씨네21 인터뷰 中 2019년 10월 24일)

심층 분석

사회/경제적 정치나 사회란 최선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고, 욕하지만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으나 〈신문기자〉는 다르다. 시멘트 블록 사이에 핀 식물처럼 악다구니와 강한 생명력으로 통념에 저항한다. 주인공은 가짜 뉴스와 협박을 일삼는 정부의 불법 행위에 용기 있게 맞선다. 특히 정치라면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것이 미덕인 일본 문화에 큰 반향을 일으켜 주목받고 있다.

영화적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형태만 있으면 된다." 대사가 암시하듯 이 영화는 일본 특유의 현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적은 편이다. 대사가 명료하고 연출은 직선적이다. 정치 권력의 오용을 보고도 모른 척 살아온 국민에게 비극을 전달하는 데 주저 없다. 거국적 사명을 따지며 설교하지 않아 공감하기에 한결 수월하다. 사회고발 영화치고 사건의 개연성이 부족하고, 대충 넘어간다는 국내 평도 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일본의 보편적 감수성과 언론 자유 지수가 10년 만에 50계단 추락한 특수성을 감안하면 처연한 인물 심리에 집중한 것은 자충수가 아니라 의도된 묘수가 아닐까?

전문 리뷰어 평가

"사회적 메시지가 좋았다!"

- **이대현(신문과 방송: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변하지 않는 권력, 변하지 않아야 하는 언론
- **고레에다 히로카즈(영화감독)** 신문기자 직업에 대한 영화가 아니다. 시대에 처세를 넘어 가져야 할 긍지에 관한 영화.

영화의 긴장감과 연출에 반했다!

- **야마다 요지(영화감독)** 지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봐야 한다. 숨죽일 만한 서스펜스를 만든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의 기량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 **Auvis (일본 영화 전문 리뷰어)** 〈항공모함 이부키〉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일본 영화의 도전과 한계

꾹꾹 누르면 회복 OK

발 지압으로 건강 챙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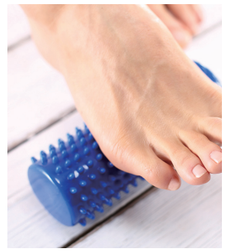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한다. 심장과 가장 멀리 있지만 심장 못지않게 중요하다. 불편한 신발, 적은 활동량, 잘못된 습관 등 갖가지 이유로 현대인들은 발을 혹사시키면서도 발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틈틈이 발을 지압하고 피로를 푸는 것이 전신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다.

문지르고 압박하면 발 건강 확보

몸 어딘가가 뻐근하거나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가장 흔히 하는 동작은 손으로 그 부위를 꾹꾹 눌러 마사지하는 것이다. 아픈 부위를 손가락이나 기구로 눌러 자극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것을 지압이라고 한다.

발은 몸에서 피로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위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걸을 때, 서있을 때 체중의 부담은 온전히 발로 쏠린다. 발에 느껴지는 불편은 방치하면 통증이나 변형을 유발하고 이는 온 몸의 균형을 무너트릴 수 있다. 매일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 발을 지압하고 쌓인 피로를 풀면 다음날 보다 개운하게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발 지압에 유용한 몇 가지 도구가 있다. 손으로도 지압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면 힘은 덜 들이고 효과는 향상시킬 수 있다. 수시로 실행하면 발바닥의 근육을 풀 수 있다. 마땅한 도구가 없다면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이용해도 된다. 밟고 올라서서 발바닥 아치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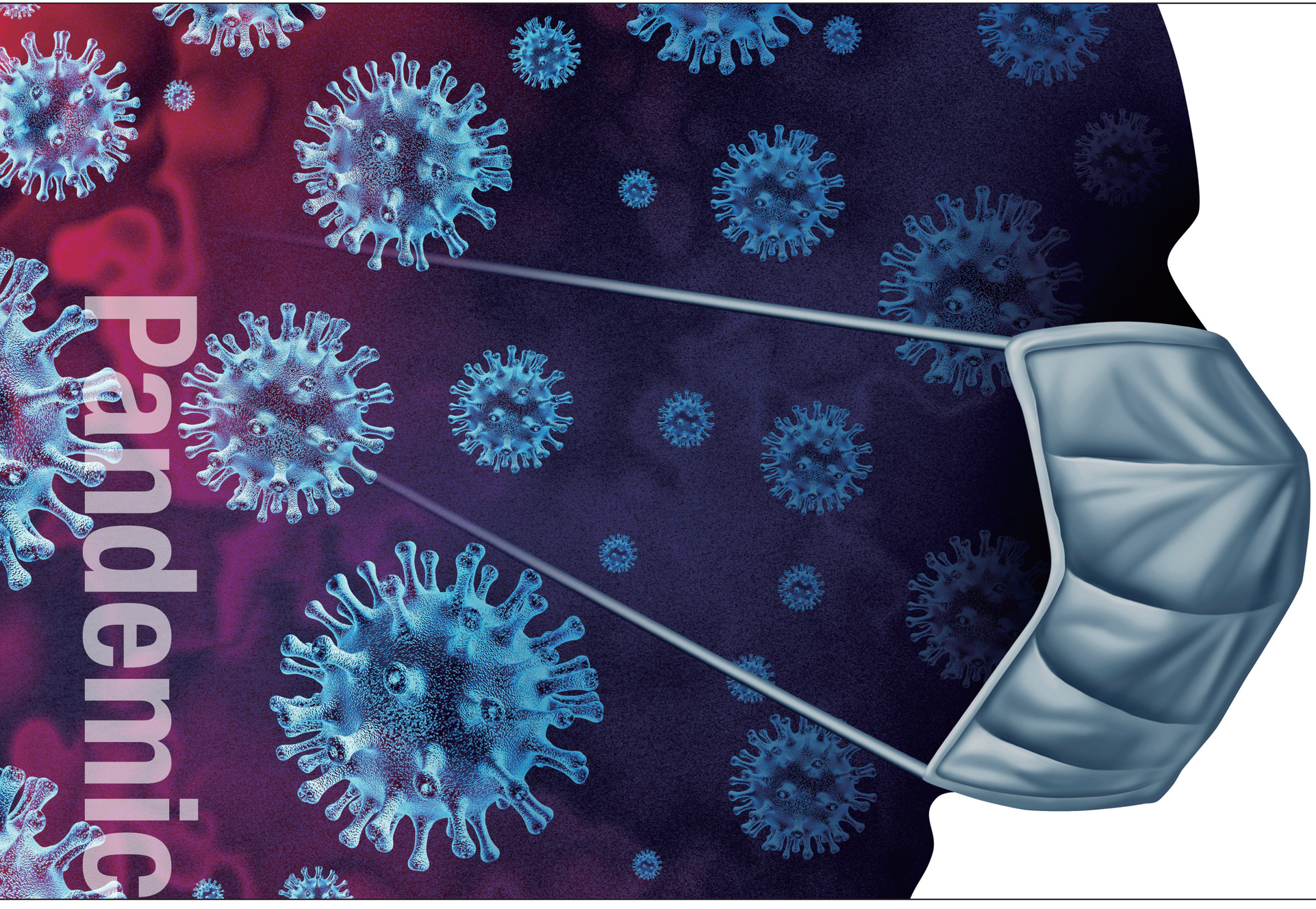
풋 롤러 또는 지압볼로 발 마사지하기

❶ 풋 롤러를 발가락 밑에 두고 살짝 힘을 주며 지그시 누른다.
❷ 20초 정도 유지하고 떼었다가 다시 힘을 주는 루틴을 3~5회 반복한다.
❸ 풋 롤러를 발바닥 아치에 두고 지그시 누르며 앞뒤로 굴려 자극한다.
❹ 마찬가지로 20초 정도 유지하고 떼었다가 다시 자극을 반복한다.

요가링(젠링)으로 발 마사지하기

❶ 가운데 공간에 발을 끼우고 올라서서 발바닥에 힘을 줘 촘촘하게 밟는다.
❷ 발을 쭉 편 상태에서 발등부터 발목까지 젠링을 굴리며 마사지한다.
❸ 반대로 발뒤꿈치부터 발바닥을 지나 발가락 끝까지 젠링을 밀며 마사지한다.

요가링은 발뿐 아니라 종아리 풀기에도 유용하다. 어떤 동작을 하지 않고 그저 끼우고 있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종아리에 요가링을 끼우고 똑바로 일어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한다. 붓기 해소에 효과적이고 다리의 피로도를 크게 낮춘다.



감염병 경보 등급 최고 수준
팬데믹의 모든 것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WHO의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우리말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라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 팬데믹 선포가 이뤄지는지 역사적 사례로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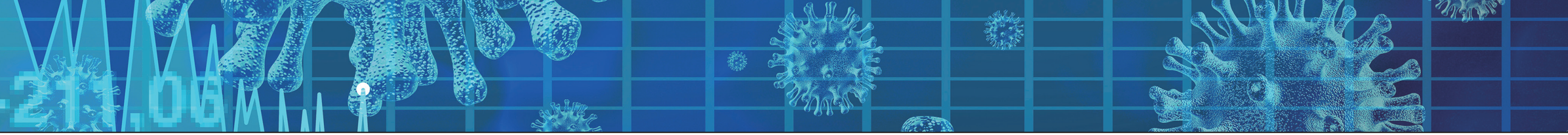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는 1~6단계의 감염병 경보 기준을 갖고 있다. 그 중 6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팬데믹(Pandemic)이다.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했을 때 선언할 수 있다. '모두'와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 'pan', 'damic'을 합친 용어다. 세계적으로 전파된 질병에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의미다.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을 의미한다. 2단계는 동물 간 전염을 넘어 소수의 사람이 감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한 상태다. 4단계는 사람들 간 감염이 급속히 퍼져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감염이 널리 확산해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다. 6단계인 팬데믹은 5단계를 넘어 다른 대륙 국가에서도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다.

팬데믹이 선포된 사례는 그동안 세 차례 있었다.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 2020년 코로나19다.

세계를 휩쓴 팬데믹 사례들

WHO가 첫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하게 한 홍콩 독감은 1968년 홍콩



코로나19 완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 등장해
인류를 위협해왔다. 그러나 백신이나 치료 약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Pandemic

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호흡기 증상에 오한과 발열, 근육통, 무기력증 등을 동반하는데 약 6개월여 동안 이 병이 유행하면서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를 넘어 남미, 유럽, 호주, 아프리카로 번져나갔다. 세계 사망자 수는 10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팬데믹 선언은 2009년 신종플루에 의한 것이었다. 멕시코에서 시작된 것이 미국으로 퍼졌고 곧 세계를 위협했다. 214개국에서 발병한 신종플루는 1만 8,5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자 수 75만 명, 사망자 수 250여 명이 나왔다. 2009년 4월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최초로 선포했고 이어 6월 11일 팬데믹을 선포했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로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이제는 A형 독감으로 지칭되고 있다.

세 번째가 바로 올해 모두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게 한 코로나19다. 지난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했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1월 30일에는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3월 11일 팬데믹을 선포하는데 이르렀다.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에 묻었을 때 전염된다는 사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라는 점 등 많은 내용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 완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역사에 기록된 감염병들

팬데믹의 선포는 1948년 WHO 설립 이후 세 번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도 팬데믹에 해당할 규모의 질병들이 있었다.

14세기 유럽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흑사병(페스트)이 대표적이다.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물려 페스트균이 옮고 그로 인해 급성 열성 감염병에 걸린다. 흑사병으로 인해 당시 유럽 인구의 30~40%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현재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일부에서 발병하고 발생 빈도가 현저히 감소했다.

천연두 역시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병으로, 인류 최초의 감염병이라 불리기도 한다. 천연두는 1796년 종두법을 발견하기 전까지 90%에 이르는 치사율을 보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오염된 물건을 통해 감염돼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했다. 남미 페루 잉카제국이 천연두 바이러스로 몰락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백신 접종 덕분에 감염은 서서히 줄었고 1977년 환자를 끝으로 더는 발병하지 않아, WHO는 198년 5월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지구에서 사라진 첫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오염된 물과 음식으로 전염돼 중증 탈수 증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콜레라도 대유행했다. 인도 벵골 지방 풍토병이었던 콜레라는 인도를 침략한 영국군에 의해 콜카타를 거쳐 세계로 확산했다. 1865년, 수백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다시 유행했다. 나쁜 공기가 원인일 것으로 알려졌다가 오염된 물이 감염 경로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세계 주요 도시들이 상하수도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콜레라는 현재도 발생하고 있기에 유행 지역을 여행할 때는 백신 투여가 권장된다.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히 당부 되고 있다.

에피데믹과 엔데믹

팬데믹을 선포할 규모는 아니지만 비교적 넓은 지역에 퍼진 감염병을 에피데믹(Epidemic)이라 이른다. WHO 감염병 경보 4단계가 여기에 해당하며 감염 속도가 2주 이하로 매우 빠르다.

에피데믹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2002년 11월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가 있다.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한 사스는 홍콩을 거쳐 세계로 확산했다. 8개월간 30여 개 나라에서 8,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8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숨졌다. 사스는 일부 동물에게 치명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위협적인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켜 일어난 일이었다. 사스 역시 코로나19처럼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예방법 중 하나였다.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에볼라 출혈열은 2016년 WHO가 종식을 선언했지만 2017년 5월 다시 발생하면서 계속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1976년 처음 발견됐는데 2014년 크게 유행해서 1만 1천여 명을 사망하게 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감염자를 만들어냈다. 급성 열성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지만 숙주나 감염경로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예방백신도 아직 없다.

엔데믹(Endemic)은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말라리아나 뎅기열이 여기에 속하는데 한정된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감염자 수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 등장해 인류를 위협해왔다. 그러나 백신이나 치료 약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내 의료진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온 국민과 세계인들이 개인위생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글 임정태 (부산구치소 교감)

만만디 총각

결혼 10년 만에 얼떨결에 내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 전세금 8천만 원에 월 30만 원을 내고 7년 가까이 산 집에서 느닷없이 집주인이 월세를 10만 원 더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자잘한 수리부터 베란다 물 새는 것까지 알아서 고쳐가며 살았던 집이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집주인과 몇 차례 통화도 했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다른 곳에도 전셋집을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급기야 지은 지 4년 된 아파트를 사고 만 것이다. 급한 마음에 덜컥 1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산 집이라 어깨는 무겁고 허리는 휘청거리지만 처음으로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쫘악 찍혀 나오니 나름 신기하고 뿌듯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지하철까지의 거리는 예전 집과 비슷했다. 전과 확실히 달라진 것은 아파트 바로 앞으로 마을버스가 다닌다는 것이다. 처음 이사 올 때는 마을버스가 15분 간격이었는데 수입이 좋지 못한 것인지 배차를 줄여서 어느 순간부터 20분 간격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양손 가득 짐 있는 날이나 속없이 비가 내리는 날에는 마을버스가 꽤나 고마운 존재였다. '만만디(慢慢的) 총각'은 바뀐 마을버스 기사에게 내가 붙인 별명이다. 우리 동네 마을버스 기사 분은 두 명이다. 해가 바뀌면서 전에 몰던 나이 지긋하신 기사분이 젊은 남자를 보조석에 태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젊은 남자가 마을버스를 몰게 되었다. 대개의 기사 분들은 차가 밀릴 때는 천천히 몰다가도 앞에 차가 없거나 정류장에 손님이 없으면 조금 속도를 내어 차를 모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도 덩달아 빨라진다. 평소 때는 거의 신경을 안 쓰지만 사람 마음이 간사하여 약속시간이 늦어 괜히 마음이 앞서는 날에는 그 자그마한 과속 하나가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다. 신난다. 그런데 새로 운전대를 잡은 젊은 총각은 좀 달랐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산전수전 다 겪은 시골 노인장 마냥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도로에 차가 없을 때도 그렇고 손님 없는 정류장을 지날 때도 그렇다. 어찌 보면 가속 페달이 아예 없는 차량 마냥 느릿느릿한 것이 영락없는 만만디(慢慢的)다. 붙임성 있는 성격이 못 되어 아직 한번도 만만디 총각과 제대로 말을 섞은 적이 없어 그의 고향이 그쪽인지, 어쩌다보니 성격이 그리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유로움을 넘어 느려 터진 달팽이 버스가 갑갑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다.

알 수 없는 세상,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생활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그러할 것이다.

회의는 아침 7시 40분에 시작되지만 아침도 먹고 대충 일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4~50분 거리에 있는 회사지만 새벽 일찍 집을 나서게 된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3월 초의 출근길, 일교차가 크다고는 하지만 봄기운이 풀린 새벽은 생각보다 춥지 않다. 목도리도 장갑도 생략한 출발은 얇은 겨울 상의 한 벌로 넉넉하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출근길 아침은 선택의 연속이다. 아침을 집에서 대충 먹고 갈 것인가 그냥 출근해서 직원 식당에서 먹을 것인가부터, 역까지 걸어가 바로 지하철을 탈 것인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려 마을버스를 타고 환승할 것인가까지 사소한 고민은 줄을 잇는다. 조금 서둘러 새벽 5시 57분에 집을 나서면 역까지 걸어가도 새벽 6시 10분에 연산역에 들어오는 열차를 바로 탈 수 있지만, 머뭇대다 새벽 6시 넘어 집을 나서는 날엔 새벽 6시 6분에 아파트 앞 정류장에 도착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마을버스를 제시간에 타면 새벽 6시 8분 정도에 역에 도착하므로 조금 잰걸음으로 총총대며 뛰어가면 새벽 6시 10분에 도착하는 열차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기에 여유가 있어 어제 보던 기사를 잠시 검색하느라 지체했더니 어느새 새벽 6시, 늦었다 싶어서 오늘은 마을버스를 타고 가 열차로 환승을 하기로 한다. 아무도 없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서 토닥토닥 바닥을 두드리며 주위를 맴도는데 예감이 썩 좋지 않다. 시간이 되었는데도 마을버스가 오지 않는 것이다. 혹시 만만디 총각인가, 불길한 예감이 등허리를 스쳐 지난다. 새벽 6시 7분이 조금 넘어서야 마을버스가 온다. 역시나 만만디 총각이다. 불과 1~2분 차이지만 이 시간엔 꼭 교차로에서 정지신호가 걸리고 그러다 보면 새벽 6시 10분이 넘어서 마을버스가 지하철 입구에 선다. 늦었다.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헉헉거리며 승강장까지 전력질주를 해본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지하철이 막 떠난 텅 빈 승강장, 6시 12분이다.

떠난 열차는 다시 오지 않는다. 잠깐 뛰어온 숨에 등짝까지 땀이 밴 속옷의 축축함을 느끼며, 다음 열차가 들어오는 새벽 6시 22분까지 나는 만만디 녀석을 원망하며 계속 툴툴거려야 한다. 아침시간의 '12분'이란 '여유'와 '부산함'을 가르는 엄청난 시간이다. 덕분에 나는 쓸데없는 부산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냥 평소처럼 새벽 5시 57분에 출발했다면 만만디 녀석과 마주치지 않았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의 늑장보다는 마을 주민의 안락한 출퇴근을 책임지는(?) 자로서 마을버스를 늦게 운행하여 나의 부산함을 만들어 낸 만만디가 아쉽다.

어쨌든 하루는 시작되고 나는 또 달린다. 누군가는 새벽같이 지하철을 운행하고, 누군가는 버스를 몰고, 누군가는 거리를 치우고, 누군가는 먹을 것을 판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수고 덕분에 나는 내 차를 몰지 않고도 회사까지 무사히 출근을 한다. 그리고 내가 지불하는 차비라는 이름의 작은 돈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을 지켜내는 윤활유가 된다. 이처럼 인간은 알게 모르게 서로를 돕고 사는 존재다. 누군가에게 나는 도움을 주겠지만 누군가에겐 생각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지도 모른다. 또 누군가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알 수 없는 세상,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생활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그러할 것이다. 삶이다.

예능도, 다큐도 다 되는 재미있고 진지한

과거부터 드라마나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교정행정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투명하고 열린 교정행정이 강화되면서 미디어 속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의 이미지도 함께 달라지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이 직접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권위적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있고 교정교화 정책을 알리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뭉쳐야 찬다〉에 깜짝 등장한 매너남들, 안양 교도관 FC

3월 15일 방송된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에는 안양교도소 축구동호회 '안양 교도관 FC' 선수들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뭉쳐야 찬다〉는 대한민국 스포츠 각 분야 일인자들로 구성된 축구팀 '어쩌다 FC'가 전국의 축구 고수들과 대결을 벌이며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전국 교도관 축구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안양 교도관 FC가 출연한 것.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교정행정이 어둡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국민들이 교정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고 싶어서 1월쯤 제작진에 신청서를 보냈어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신청서를 접수한 〈뭉쳐야 찬다〉 제작진이 직접 찾아와 안양 교도관 FC의 경기를 관전하고 돌아간 후 곧바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방송이 된 것은 3월 15일이었지만 실제 촬영은 2월 중순경에 파주 소재의 축구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섭외를 담당했던 작가는 "신청서를 받았을 때 교정기관에도 축구팀이 있다는 사실이 좀 신기했어요. 축구를 통해 교정기관의 무거운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굉장히 유쾌한 팀이었어요. 특히 경기 매너가 굉장히 좋았어요. 함께 했던 출연자들도 '경기 매너가 좋다'고 칭찬을 하셨어요."라고 소개했다. 선수들이 경기에 몰두하다 보면 과격해지기 십상인데 상대팀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시청자 후기에도 겸손하고 매너가 좋은 팀이라는 평가가 꽤 달려 있다.

"원래 참여 취지가 교정기관의 이미지 쇄신이었기 때문에 매너가 좋다는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작팀에서 편집을 잘 해주어 시청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경기는 4:1로 안양 교도관 FC팀의 완승이었다. 특히 경기 후반부에 어쩌다 FC팀의 이만기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렸을 때 교도관 FC팀도 함께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큐 세상〉 속 교도소, 사회격리 기능을 넘어 교정기관 이미지 각인

3월 13일 방송된 KBS 1TV 〈다큐 세상〉의 '범죄의 뇌과학, 크리미널 마인드' 편에도 교정기관이 등장했다. 범죄자의 뇌, 재범을 거듭하는 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뇌과학'을 통해 설명하는 매우 흥미로운 방송이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뇌과학자들은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뇌를 변화시킴으로써 폭력성을 잠재우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방송 말미에는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재범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특히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기관의 노력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었다.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부 교정본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교정본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남부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광주교도소 등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수용자 인터뷰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심리치료 및 인지행동치료 현장, 소년 수용자 대상 교정교화 프로그램인 '제로캠프', 가족 만남의 집 등이 방송에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윤미영 PD는 "촬영 협조를 받으면서 예전에 비해 교정기관 수용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심리치료센터,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촬영 소감을 밝혔다. 시청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 시청자는 "교도소를 단순히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시설이라고만 여겼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교도소가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도소를 왜 '교정기관'이라고 말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기도로 용서를 구합니다”

‘희망의 백일장’은 수용자들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출소 후 떳떳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참회와 교화의 시간을 거쳐 사회로 돌아갈 수용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차마 입 밖으로도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못나고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의의 사고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평생을 제 옥바라지하시느라 보내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사회에 적응하려 안간힘을 썼으나 어머니를 잃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황이 또 시작되었고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의 방탕한 삶은 언제 열심히 살았었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홀로 남은 아버지였습니다. 올해 일흔다섯 살의 연로하신 아버지.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습니다. 저는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시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가 외로이 소파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보라보고 계셨습니다.

천하에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숨이 멎을 듯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밀 듯이 밀려오는 죄송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저만 슬픈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저만 힘들고 괴롭고 아픈 줄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돌아볼 줄 모르는 못난 아들이었구나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 모시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새로 집을 얻어 이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고 싶었지만 이사한 지 5일 만에 또다시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탕했던 삶의 대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치장을 거쳐서 이곳 OO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인천에서 이곳 OO구치소까지 접견을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려고, 내 마음속 무거운 짐을 덜어내려고 하는 사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욕심으로 하는 사과라면 아버지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애써 잊고 사시는데 또다시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몸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슬픔만큼이나 큰 것이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힘들어하실 때 위로를 해드리며 강건한 모습을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간의 못난 행동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질 못했습니다. 매주 접견 오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잘못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이것이 정답은 아닐 테지만 해답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이 정답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거듭나는 삶 속에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 되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마음속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을 말입니다. 이렇듯 저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써 말입니다.

교정음악치료가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 (下)[1]

–타악기를 중심으로–

글 김은주[2], 이인용[3]

Ⅰ. 서 론
Ⅱ. 교정음악치료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 교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제85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 하였음
▶ 접수일(2019. 11. 30.) 심사일(2019. 12. 18.) 수정일(2019. 12. 23.) 게재확정일(2019. 12. 26.)

1) 본 논문은 주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축약한 것이며, 연구년도(2014–2015년) 당시 본교 IRB 승인 절차가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았음.

2) 가족사랑음악치료센터 학교 · 교정음악치료팀장, 음악중재전문가(KCMT), 제1저자.
3)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전공 초빙교수, 교신저자.

5.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

1) 범죄자 치료 모형을 바탕으로 한 내용 구성

프로그램의 구성은 범죄자 심리 재활 치료 모형 중 하나인 좋은 삶 모형 (Good Lives Model, GLM)을 바탕으로 하였다. GLM 모형은 범죄자가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목표와 방법을 알아내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스킬, 태도, 자기 신념 등을 갖는다면 범죄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윤정숙 외, 2011). Willis, Prescott와 Yates(2013)가 제시한 GLM의 구성 개념에 따라 도출한 회기별 주제 및 연관된 타악기 활동은 〈표 3〉과 같다. 타악기 활동은 악기 탐색(연주 시도), 구조적 연주[4], 드럼 서클[5], 표현 중심의 연주[6], 팀별 공연의 흐름으로 종결 단계로 갈수록 점차 구체적이고 폭넓은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3〉 GLM 구성 개념에서 도출한 회기별 주제 및 타악기 활동

단계	GLM 구성 개념	주제	회기	형기
도입	좋은 삶 계획 (과거와 현재 인식)	만남,도전	1, 2	악기 탐색, 짧은 리듬 연주 구조적 연주 (무선율타악기)
중재	관계성과 우정	공동체	3	구조적 연주 (유선율타악기)
	자율성	용기	4	합주 이끌기 (지휘) 드럼 서클
	내적 평화	자유	5	표현 중심 연주
	행복감	행복	6	표현 중심 연주
종결	위험관리 계획 (미래 지향)	희망, 성장	7,8	팀별 합주 공연

4) 음악 요소(리듬,빠르기,셈여림 등)를 사용하여 치료사가 의도적으로 구조화한 활동을 말하며, 연주 모방, 리듬 및 선율 표현, 독주 또는 합주 등으로 구성된다

5) 집단이 원의 모양으로 모여 북, 금속, 나무, 쉐이커 등 다양한 종류의 타악기를 연주하는 리듬 중심의 즉흥연주를 말한다

6) 악보, 형식, 기준, 방법이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및 내용

매 세션 진행의 흐름은 〈표 4〉와 같다. 심리적으로 안전한 치료적 환경을 위해 타악기 연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재 단계 전 워밍업 활동에서는 집단의 에너지수준을 확인하고 중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짧은 리듬 연주 활동과 리듬에 맞춰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으로 '지금–여기'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였다. 중재 후에는 타악기 활동을 통해 각자 느낀 소감이나 경험을 충분히 나누고 이를 통해 발견한 성장 자원들을 재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회기 주제와 연관된 대중가요 부르기로 마무리하였다.

〈표 4〉 세션의 구조화

단계	목표	활동	시간(분)
시작	주의 집중	Hello song, 안부 나누기	10
워밍업	에너지 환기 및 주제 도입	말 리듬 활동, 동작 리듬 활동 등	10
중재	각 회기별 목표 (표 5 참조)	단계별 타악기 활동	60
강화	성장자원 확인 및 내면화	활동 경험과 소감나누기	15
마무리	활동의 정리 및 강화	강화 노래 부르기	5

8회기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내용은 〈표 5〉와 같다. 예비조사에서 참여자들이 타악기 연주를 선호하였으나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체면 문화' 등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고 평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악기 탐색과 연주 시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어 회기가 지속됨에 따라 긍정적 강화를 받아 점진적인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조화하였다.

〈표 5〉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목표 및 주 활동 내용

회기 및 주제	치료적 목표	주 활동 내용	사용 음악
1회기 만남	– 적응 및 참여 동기 부여 – 집단의 친밀감 및 응집력 형성	프로그램 OT 애칭 선물, 소개 구조적 연주:4박자 리듬챠트	– 〈비타 500〉 CM송 *가사 개사하여 제공
2회기 도전		구조적 연주: 리듬치며 애칭 불러주기, 악기 탐색, 짧은 리듬 연주 및 모방하기	–도레미송 (sound of music) –God's Whisper (Raury) *연주를 위한 배경음악으로 사용
3회기 공동체	– 타인 인식 – 교류적 활동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구조적 연주: 공명실로폰 합주(단음에서 화음)	–에델바이스 (외국곡)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Secret Garden) *연주를 위한 배경음악으로 사용
4회기 용기	– 부적 감정 표현 및 해소 – 자신감 증진	구조적 연주: 지휘자가 되어 연주 이끌기 표현 중심 연주: 젬베로 기분 표현하기	–Hungarian Dances (Johannes Brahms) *연주를 위한 배경음악으로 사용
5회기 자유	– 현실대리경험을 통한 정서 변화 유발 – 표현력 증진	표현중심연주: "여행"을 주제로 한 즉흥 연주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이레빗)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 *정서 탐색과 표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감상 음악으로 사용, 연구자가 라이브 반주 및 노래 제공
6회기 행복	– 지지적 자원 인식을 통한 정서 변화 유발 – 표현력 증진	표현중심연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리 탐색, 동료와 연주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노찾사) * 정서 탐색과 표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감상 음악으로 사용
7회기 희망	– 교류능력강화 – 성취감 증진	– 팀 별 합주: 선곡하기, 악기 배정하기, 합주 악보 만들기 – 공연 연습	–소나기 (김장훈) –나는 나비 (YB) –그래,우리 함께 (무한도전) * 노래를 선정하여 가사의 정서를 악기로 표현하여 합주하며 노래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사용
8회기 성장	– 성취감과 만족감 경험 – 변화된 정서 확인	– 팀 별 연습 및 공연 (교정교화팀 교도관 초청) – 피드백 나누기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자아존중감

연구참여자 14명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사전(M=3.59)에 비해 사후(M=3.72)에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6〉 자아존중감 척도 사전 · 사후 t 검증 결과 * p<.05

항목	시기	N	M	SD	t
자아존중감	사전 검사	14	3.59	0.42	−1.442
	사후 검사	14	3.72	0.44	

하위 요인을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확신에서 점수가 향상되었고, 그 중 자기주장과 확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182, p<.05). 즉, 교정음악치료는 자신감이 있어 결단이 쉽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자기 주장과 확신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아존중감 척도 하위 요인 사전 · 사후 t 검증 결과

항목	시기	N	M	SD	t
자기 고양	사전 검사	14	3.75	0.63	.000
	사후 검사	14	3.75	0.60	
타인과의 관계	사전 검사	14	3.88	0.41	1.127
	사후 검사	14	3.99	0.46	
지도력과 인기	사전 검사	14	3.41	0.51	−.945
	사후 검사	14	3.52	0.60	
자기주장과 확신	사전 검사	14	3.36	0.50	−2.182*
	사후 검사	14	3.59	0.53	

2. 다면적 형용사 체크리스트(MAACL)

연구참여자 14명의 MAACL 사전 · 사후 t 검증 분석 결과 부정적 정서 점수가 사전(M=15.43)에 비해 사후(M=12.36)에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8〉 MAACL 사전 · 사후 t 검증 결과

항목	시기	N	M	SD	t
MAACL 전체	사전 검사	14	15.43	8.03	1.349
	사후 검사	14	12.36	4.77	

하위 요인을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사전에 비해 불안, 우울 요인의 점수가 감소하였고, 그 중 불안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539, p<.01). 즉, 교정음악치료는 '염려스러운', '두려운', '당황스러운', '긴장한' 등의 감정으로 표현되는 불안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MAACL 하위 요인 사전 · 사후 t 검증 결과

항목	시기	N	M	SD	t
우울	사전 검사	14	7.21	4.73	1.513
	사후 검사	14	5.14	2.68	
불안	사전 검사	14	1.86	1.56	3.539**
	사후 검사	14	0.21	0.80	
적대감	사전 검사	14	6.36	2.73	−.801
	사후 검사	14	7.00	2.69	

3. 논의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던 자기주장과 확신은 자신의 생활 태도에 대한 신념과 자율성, 결정성, 그로 인한 행복감과 관련 있다. 타악기의 탐색과 선택, 각 악기가 지니는 외적 특징 및 고유한 음색 등을 활용한 정서의 표현, 팀 선택과 합주 과제 수행 등 타악기 연주 활동의 전 과정이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과정이었다는 점이 자기주장과 확신 요인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집단치료 활동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동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었고, 집단원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역동적인 상호 작용으로 긍정적인 결과물을 발현하는 과정이었다. 활동에 수동적이거나 자신감이 약했던 참여자들은 치료사로부터 뿐 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참여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연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교정음악치료가 가질 수 있는 의미와 가능성이다.

〈표 10〉 자아존중감 관련 참여자의 언어 · 행동적 반응

관련 변인	언어 행동적 반응
자기 고양	– "출소 후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참여자 G) – "나도 노래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해주었다" (참여자 B)
타인과의 관계	– "각자 개성이 강하고 개인 중심이 많은데, 음악치유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이해심과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배려심이 강해졌다" (참여자 J) – "서로 같이 느끼고 웃고 동요하는 것이 행복인 것 같다" (참여자 K) – "동료와 사소한 일에 마음을 닫고 생활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함께 해야할 시간이 되어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참여자 N)
지도력과 인기	– 음악 전공자였음에도 초반에 악기 선택을 미루고 회피하던 모습을 보이다가 팀 별 공연에서는 팀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보임. "점점 내 자신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 과정에서 무언가 더 끌어내어 연주회를 한 번 열어 무대에 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참여자 G)
자기 주장과 확신	– "처음 시작하며 무안하고 부끄러웠는데 내 마음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자신 있게 노래를 하게 되서 나름 뜻깊었다" (참여자 L) –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곳에서의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설계하게 되었다 (참여자 B)

2)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하위 요인 중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 교정음악치료가 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울과 적대감 점수는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 진행 도중 갑작스럽게 참여자 4명이 타 교도소로 이감되었던 상황과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 모두 흩어져 타 교도소로 이감되는 불안정한 복역 환경은 치료 목표 달성에 부담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즉각적인 기분 변화에 영향을 주고, 노래 가사에 의해 그날의 기분이 좌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타악기는 수감 현실에서 가장 손실되기 쉬운 긍정적인 정서성인 '자유'와 '행복'을 회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자기 개방의 매개체가 되었다. 오션 드럼, 카바사, 에그 쉐이커 등의 타악기 음색은 악기 연주와 동시에 구체적인 심상을 떠올리게 하여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기가 주는 청각 자극을 통해 '아내가 쌀 씻는 소리',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 '아이의 웃음 소리'등으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정서를 표현하며 내면을 개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수 년간의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수형자들은 이처럼 감정을 표현하고 지지적인 내적 자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과 동시에 수감된 현실을 더욱 실감하여 우울한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활동을 통해 느끼는 '자유로움', '즐거움', '만족감' 등의 정서는 '집에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등의 생각으로 연결되어 '아쉬운',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가족, 친구 등 관계적 자원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은 참여자들의 출소 욕구를 더욱 강하게 만들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이런 곳에 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자기 성찰의 계기도 되었다. 참여자들이 타악기 연주를 통해 가족과 함께 했던 긍정적인 상황과 감정을 재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은 타악기 연주를 통한 청각 자극이 교화의 가능성이 큰 초범 수형자들의 자기 성찰과 긍정적인 미래상 확립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 활동을 통해 느끼는 '자유로움', '즐거움', '만족감' 등의 정서는 '집에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등의 생각으로 연결되어 '아쉬운',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타악기 중심의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이 경험하는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 변화를 살펴보았다. 타악기 중심의 교정음악치료는 자아존중감의 측면에서 단계적인 음악 활동의 전 과정 · 악기의 탐색과 선택, 노래 선곡, 팀 구성, 합주 공연–을 통하여 수형자의 자기표현을 촉진하여 수동적이기 쉬운 수형자의 자신감과 자율성을 고무시켰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비언어적이나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창조한 음악과 지지적인 환경 안에서 주고 받는 피드백으로 자기 확신과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특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느끼는 우울감(슬픔, 괴로움, 미안함 등)을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 설계로 승화시키는 긍정적인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통제집단 없이 단일 시기에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둘째, 다양한 연령과 범죄 유형으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범과 사기 등재산 범죄자는 범죄 행동에 대한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치료적 개입과 목표 역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자의 대다수를 차지한 성범죄자의 경우 인지 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후 연구에서 특정 범죄 유형에 중점을 둔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주 중재 도구로 타악기를 활용하였으나, 연주를 위해 사용된 배경 음악이나 회기 종료 시 강화를 위해 사용된 대중가요의 가사, 가창 활동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타악기 연주 기법과 노래만을 활용하

는 노래심리치료 기법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된다면 음악치료의 적용 기법에 따른 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교정음악치료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연구 프로그램 구성에 좋은 삶 모델의 원리를 적용하였지만, 구체적인 범행 요인 인식 및 목표 성취에 대한 단계로까지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언어적인 타악기 중심 음악 활동이 간접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수형자의 자기표현을 촉진하였고, 강화로 사용한 대중가요의 가사가 참여자들의 자기 통찰과 내면 정리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좋은 삶 모델을 적용한 음악치료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이루어진다면 교정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음악치료가 수형자의 중요한 재범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 사회에서 음악은 매우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인 반면 자유가 제한된 수감 시설 안에서는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독서, 글쓰기, 운동 등과 비교하여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교정 시설 안에서의 음악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별하고 강력한 강화제로서 다른 매체가 할 수 없는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음악을 통해 표현되고 고취된 감정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수형자의 정서 변화와 행동 수정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출소자 재복역률 증가세 드디어 꺾여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전년 대비 1.4%p 감소!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수형자가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입니다.

2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출소 죄명과 동일한 죄명으로 재수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 2016년 출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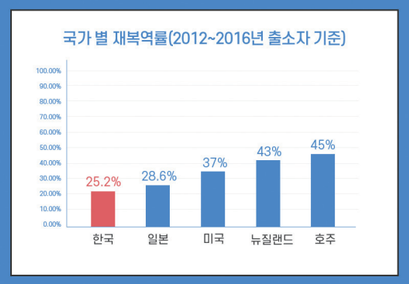
출소시 죄명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입소시 죄명	폭력	절도	성폭력	폭력
인원비율(%)	48	46	37.7	54.1

출소시 죄명	절도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
입소시 죄명	절도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
인원비율(%)	78.2	61.3	88.8	40.8

3

국가별 재복역률 비교

주요국가 출소자 재복역률 비교결과 한국이 가장 낮아
한국의 재복역률 25.2%



[출처: 전 세계 재범률의 체계적 검토, 영국 옥스퍼드대학 Denis Yukhnenko 교수 등 공저, 2019]

4

최근 5년간 재복역률 변동추이

(단위 : %)

출소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복역률	24.8	24.7	25.7	26.6	25.2
전년대비	↑3.4	↓0.1	↑1.0	↑0.9	↓1.4

2012년 이후 재복역률 증가 추이가
조금씩 완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1.4%p 줄어들기 시작

5

그 비결은?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 강화

-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 감소 시작
- 심리치료과와 분류센터를 신설하는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결과

심리치료과 신설 + 분류센터 신설

교정교화 강화

6

심리치료과 신설

심리치료과(심리치료센터)를 신설하여 고위험군 특정범죄자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정신질환범죄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 실시

7

분류센터 신설

분류센터를 신설하여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정밀 분류심사 실시

8

법무부가 드리는 약속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분류심사 과학화,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실현
-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3월 23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선별진료소 가설치,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대비 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면 마스크 제작 교도작업장을 방문하여 직원과 수용자들을 격려하였다.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3월 31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설치, 격리 수용동 운영 등을 점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 하고 있는 현장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도소24시)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교정기관 면 마스크 생산 돌입

사진 여주교도소 제공

지난 3월 10일부터 안양교도소 등 전국 13개 교정기관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면 마스크 생산에 돌입하였다. 13개 교정기관의 봉제 작업장 수형자들은 휴일과 야간에도 연장 작업을 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주문량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총 주문량은 약 200,000장에 이르며 원재료를 자체 구입하여 생산하는 마스크의 경우 개당 750원의 가격에 공급된다.

2019년 법무부 SNS 홍보 우수 기관 선정

지난 3월 17일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가 각각 2019년 법무부 SNS 홍보 우수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 인기도, 서비스 영향력, 콘텐츠 충실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선정 기관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법무부장관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법무행정의 일선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교정본부는 지난 3월 노후화 된 교정정보시스템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인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2021년 5월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이중 관리되고 있는 수용기록부를 전자문서로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능 보완 ②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 별도로 구축되어 사용이 복잡하고 노후화된 접견 민원시스템을 확장성 있는 통합플랫폼으로 표준화, 민원인의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기회 확대 ③ 다기능 민원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을 통해 민원실에서 교도관이 관리하고 있는 접수증 출력, 영치품 · 구매물 신청을 간소화하고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등 종이문서 사용 감축 등이다.

※ 교정정보시스템 :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2003년도에 구축된 수작업 중심의 전산시스템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코로나19 대응 서울청 보안과장 영상회의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3월 25일 코로나19의 교정기관 감염유입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청 소속기관 보안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접견 중지에 따른 문제점, 확진자 발생 시 기관 내 전염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울구치소 / 교도 김상혁

법무부 SNS 홍보 우수기관 수상

서울구치소는 2019년 법무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홍보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3월 23일법무부장관 상장 전수식을 진행했다. 법무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 상을 수상했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김오수 법무부차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3월 9일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김 차관은 정문, 중앙통제실, 접견실, 봉제 작업장 등 코로나19 예방 관련 주요 현장을 점검했으며 감염병 차단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과 마스크 생산에 매진하는 봉제 작업장 수용자를 격려했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보드미 어린이집 준공식 개최

수원구치소는 2월 28일 보드미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집 건축과 디자인을 맡은 공사 관계자와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관계 직원들이 참석했다. 보드미 어린이집은 3월 2일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화이트데이 선물 증정 이벤트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직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정시설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직원들은 사탕과 오렌지를 선물 받았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화이트데이 선물 증정 이벤트 실시

인천구치소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이하여 여직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날 선물을 받은 한 직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 직원이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는 분위기 덕분에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교정협의회, 성경 50권 기증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는 3월 11일 성경책 50권(1,100,000원 상당)을 서울남부구치소에 기증했다. 이날 기부는 코로나19로 교화 행사가 중지되어 종교 행사를 할 수 없는 수용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부된 성경책은 전권 사회 복귀과에 비치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 손세정제 기부 행사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3월 2일 코로나19에 대비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기부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수용자들을 위해 교정협의회에서 면마스크 구매 비용 130만 원을, 남양 코스메틱(주)에서 손세정제 2,000개(1,4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김길용

심리치료과 신설

의정부교도소는 2월 28일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치료과를 신설했다. 심리치료과에는 총 11명의 정원이 배정됐으며, 기존의 심리치료센터 · 팀 구성인원 9명이 '과'로 재배치됐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생산

여주교도소는 3월 16일부터 여주시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면 마스크 생산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 마스크 공급이 어려운 가운데 여주교도소 수형자들은 휴일과 야간에도 연장 작업을 하며 마스크 생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메아리 봉사단 손 세정제 기부

서울남부교도소는 3월 23일 메아리 봉사단 희망나눔 청소년팀으로부터 300여 개의 손 세정제를 기부받았다. 기부받은 손 세정제는 수용자의 코로나19 예방과 위생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춘천교도소 / 교도 이건희

신규 방호원 임용식 개최

춘천교도소는 3월 2일 신규 방호원 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간소하게 치러진 이번 임용식에서는 장종선 소장을 비롯한 각 과 과장들이 참석해 새롭게 임용된 방호원들을 축하했으며, 신규 방호원들은 앞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 차단 조치

원주교도소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한 자체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외부정문 옆에 문진소를 설치해 사전문진 등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신입 수용자에 대해서는 외부 선별진료소에서 확진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행동 매뉴얼에 따라 차단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생산

강릉교도소는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지역 주민 무상 공급용 마스크 22,0000여 장을 생산해 강릉시에 납품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김일환 소장은 "교정기관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욱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영월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매일 구내 전 구역에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개인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직원 공동 이용공간과 수용자 이용공간에 집중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하여 감염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평택 법조타운 헌혈 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혈액수급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3월 11일 평택 법조타운 소속 법원 · 검찰청과 함께 헌혈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헌혈은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본보기가 되었다.

소망교도소 / 배현승

코로나19 비상 대책반 편성

소망교도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 대책반을 편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내 방역 작업, 마스크 제작 및 납품, 청사 출입자 손 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외부인 청사 출입 제한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강재훈

코로나19 대응 소속기관 보안과장 영상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3월 25일 소속기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수용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소속기관 보안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용자 처우 및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변호인 등 외부인에 의한 감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원 격려 물품 제공

대구교도소는 3월 25일 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하느라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포장 삼계탕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물품을 전 직원에게 제공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최병철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3월 10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역대 최다 인원인 50여 명이 참여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진용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과 수용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3월 13일부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심리방역'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된 심리방역팀과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상담위원들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감정자유기법 등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 교육 및 우울척도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신규 임용 직원 간담회 개최

창원교도소는 3월 24일 신규 임용된 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창원교도소에서 근무하며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성품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습득한 신규 직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부산교도소는 3월 17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이후 헌혈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했다.

포항교도소 / 교도 김병수

신규 방호원 임용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3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방호원 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정창헌 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신규 임용된 직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방호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진주교도소는 3월 3일 진주시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소 내 모든 사무실과 복도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의료과를 중심으로 각 과에서 1명씩 자원하여 수용동과 작업장에 대한 자체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구구치소 / 교도 김경민

화이트데이 선물 증정 이벤트 실시

대구구치소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이하여 여직원들에게 사탕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여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 및 격리 수용동 운영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3월 3일 의료 수용동 하층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유증상자 및 접촉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격리 수용동(3수용동 하층)에 수용된다. 이번 선별진료소 설치를 계기로 코로나19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신규 방호원 임용식 개최

안동교도소는 3월 2일 소장실에서 신규 채용 방호원 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이동희 소장은 안동교도소의 새로운 식구가 된 방호원들에게 "방호원으로 채용되어 축하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 신속히 적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

김천소년교도소는 3월 1일 김천시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안 청사 신입 대기실 옆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이번 선별진료소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영진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 강화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등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직원식당 식탁마다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각 사무실 및 근무자실을 주기적으로 자체 방역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

울산구치소는 3월 9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교도소 및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해당 교정기관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코로나19 예방 활동 강화

경주교도소는 3월 6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발열 검사소를 설치하여 정문을 출입하는 외래인, 신입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매일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교정 시설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실시

통영구치소는 3월 18일 통영시 용남면 방역팀과 통영시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전 사무실 및 수용동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각 사무실 및 창고, 오후에는 보안과 및 수용동을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밀양구치소 / 교도 최상훈

코로나19 예방 활동 강화

밀양구치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6일부터 매일 2회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의료과에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정문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체온계를 비치했으며, 격리 수용동을 마련하여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응급환자 발생 대비 훈련 실시

상주교도소는 3월 21일 야간 응급환자 발생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환자상태 파악 및 심폐 소생술 등 초동조치 상황과 외부 의료시설로의 후송 계획을 점검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임제혁

'기록으로 보는 교정' 상설전시 개시

대전지방교정청은 교정기관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3월 16일 청사 중앙 현관에 '기록으로 보는 교정' 게시판을 마련하고 상설전시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대전청은 약 8천여 장의 사진 기록물에 대한 전자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 상시적인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제작

대전교도소는 3월 9일부터 봉제 작업장에서 정전기 필터가 장착된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1,400개씩 생산하여 전국의 교정기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청주교도소 /교위 박해양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주교도소는 3월 12일 출소자 일자리 창출과 수용자 직업 훈련 내실화를 위해 지역 강소기업인 (주)금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진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인력충원 시 가석방 예정자 등을 우선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천안교도소는 3월 10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전 · 세종 · 충남혈액원과 협조하여 헌혈 버스를 운영하고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운동에는 천안교도소와 천안개방교도소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마스크 자체 제작 및 지역사회 공급

청주여자교도소는 3월 18일 자체 제작한 마스크 6,000여 개를 청주시청에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이후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청주시청으로부터 원재료 및 부재료를 제공받아 제작했으며 향후 10,000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희명

공주교도소사(史) 제작 착수

공주교도소는 3월부터 공주교도소사(史)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7월 발간 예정인 공주교도소사(史)를 통해 교정의 역사를 발굴 · 보존하고 지역사회 내 교정기관의 정체성을 정립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가족접견실 설치 공사 실시

충주구치소는 3월 16일부터 기존 수사접견실 자리에 56.7㎡ 규모의 가족접견실 설치 공사를 시작했다. 가정집 거실 형태의 가족접견실이 완공되면 수용자들이 가족들과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관계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신규 방호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3월 2일 신규 방호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새로 채용된 4명의 방호원은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식으로 야간근무에 투입됐다. 이날 임용식에서 김재익 소장은 "외부 이동차량과 민원인을 상대하는 만큼 친절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최재균

대전지방교정청장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김천수 대전지방교정청장이 3월 4일 천안개방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김천수 청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천안개방교도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김승인

신규 방호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3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회 방호원 임용식 행사를 개최했다. 신규 직원의 임용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유철흠 소장은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한 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박지우

신규 방호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3월 2일 외부정문 경계근무를 위해 채용된 신규 방호원들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따뜻한 환영과 축하를 받은 방호원들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맡은 바 책임감을 갖고 근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안동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부금품 접수 및 지원

광주지방교정청은 3월 13일 소문난정형외과(김국진 원장)로부터 8,900만 원 상당의 손 소독제를, 18일에는 승천스님으로부터 50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부금품으로 전달받았다. 이날 받은 기부금품은 이후 각 소속기관에 전달됐다.

광주교도소 / 교도 심우민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광주교도소는 3월 6일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기관을 돕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생산

전주교도소는 3월 10일부터 기관 내 봉제 작업장을 마스크 생산 작업장으로 긴급 전환하고 마스크 생산을 시작했다. 마스크 원단 및 KF94급 필터를 제공하여 일평균 1,000장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마스크는 대구 · 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된 후 지역사회에도 판매된다.

순천교도소 / 교사 이승현

1사1촌 입석마을 마스크 전달

순천교도소는 3월 16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1사1촌 마을인 입석마을 경로당을 찾아 봉제 작업장에서 자체 제작한 마스크를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수인

신규 방호원 임용식 개최

목포교도소는 3월 2일 신규 방호원 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김춘오 소장은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으며 신규 방호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재민

교정협의회 수용자 격려 물품 기부

군산교도소 교정협의회 기독교분과위원회는 3월 18일 군산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들에게 떡과 바나나 각 1,200개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 교화 프로그램, 일반접견 등이 제한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한라봉 전달

제주교도소는 3월 1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의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작은 정성이지만 힘을 보태고자 하는 교정가족의 마음을 담아 총 24상자의 한라봉을 전달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 실시

장흥교도소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내식당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고 식당의 좌석 배치를 '한 방향'으로 바꿨다. 또한 마스크 착용 생활화, 구내외 방역활동 강화, 소내 선별진료소 설치 등을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해남교도소 / 교사 이상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황판 설치

해남교도소는 3월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정문 입구에 코로나19 현황판을 설치했다. 직원들의 출입이 잦은 정문에 설치된 현황판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전파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여성 직원 격려 행사 실시

정읍교도소는 3월 13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여성 직원들(기관 소속 여성 직원 포함)에게 케이크, 빵 등 격려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직원이 함께할 수는 없었으나 격려품을 전달받은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교정공제회

제10회 교정공제회 정기 대의원회 개최

교정공제회는 3월 20일 제10회 교정공제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를 교정공제회 정관 제40조에 따라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기 대의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서울

수원구치소 교감 **서정복**

현재 수용기록과에서 수용자 취 · 창업 업무를 담당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힘썼으며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수용생활에 불만을 가진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나 수용자 간 폭력행위 등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한 동료 간 화합에도 앞장서고 있는 열정적인 직원이다.

대구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교사 **김성기**

용접공과 직업훈련교사로서 수형자들을 기능경기대회에 출전시켜 2008년 장려상, 2013년 장려상, 2016년 동메달, 2017년 은메달, 장려상, 2019년 장려상을 수상하게 했다. 또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33명의 출소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지속적인 상담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했고 지역사회 복지시설 방문 및 불우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을 실천했다.

대전

청주여자교도소 운전주사보 **김영일**

복지과 운전 근무자로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빠른 대처로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호송했으며, 관용차량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공용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도로교통 법규와 각종 안전운행 수칙, 공용차량 경적소음 허용기준을 준수했다. 이로써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관용차량을 운행해 타직원의 모범이 됐다.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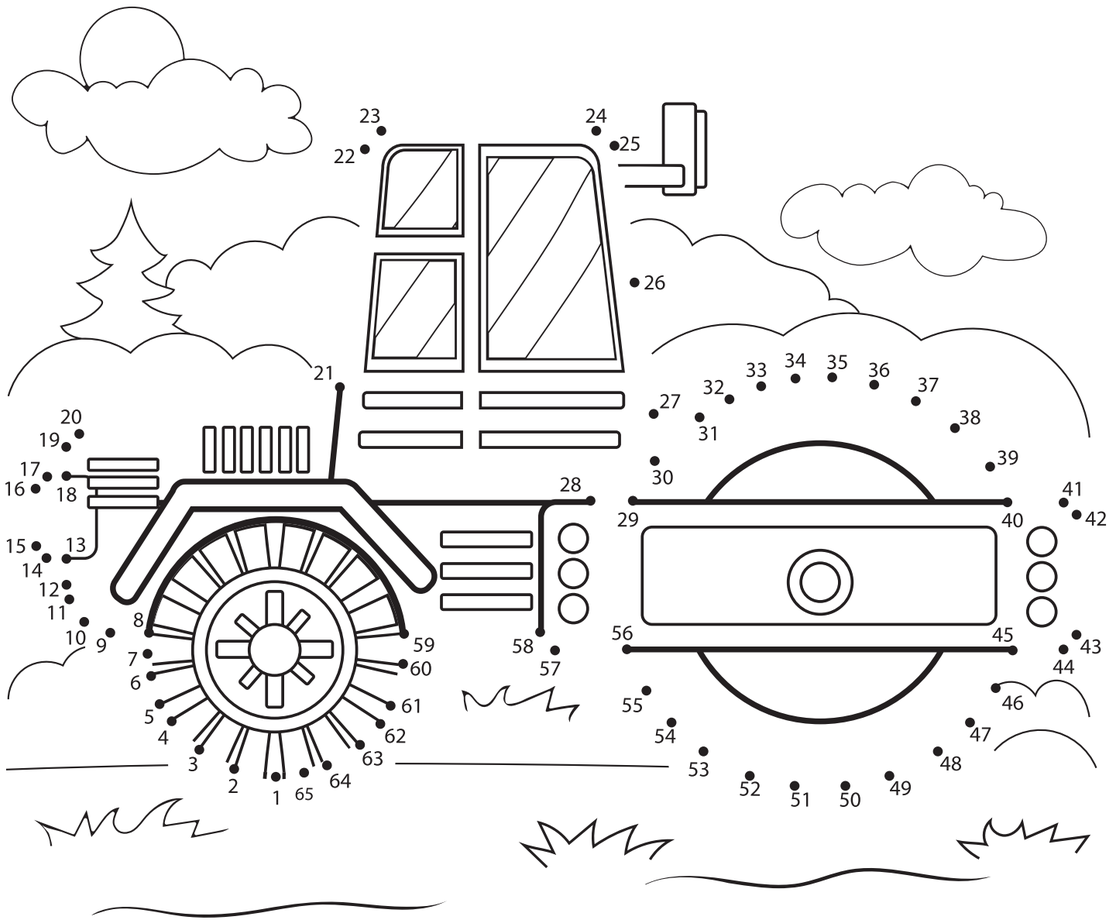
해남교도소 교사 **유주원**

총무과 구매서무 담당자로서 성실한 복무 자세와 투철한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어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구매물품 선호도를 조사하여 수용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했으며 구매 관련 악성 민원에도 친절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교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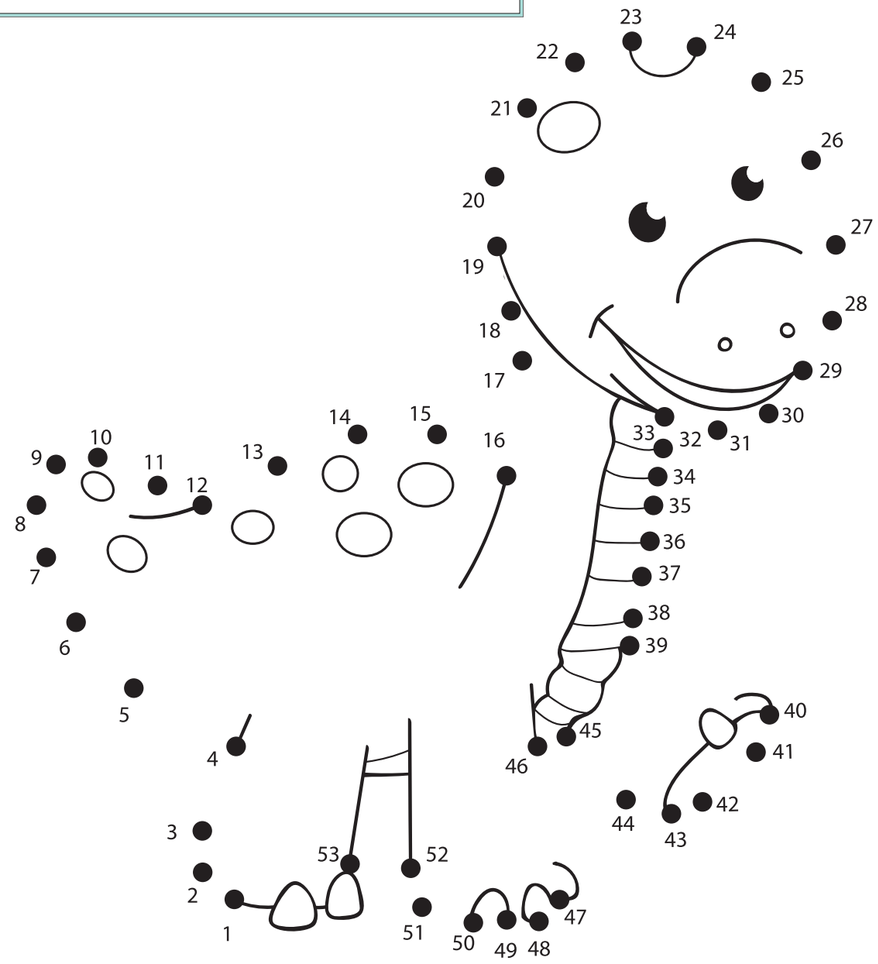
스트레스는 풀고

집중력은 높여주는 점잇기

어릴 적 한번쯤 해보았을 점 이어 그리기. 1번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이어 보세요. 차례차례 점들을 연결해 나가다 보면 숨겨진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완성된 그림의 사진을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소원을 말해봐' 참여기회 또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칭찬하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지금부터 칭찬합시다!

월간 〈교정〉이 동료 간에 칭찬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칭찬합시다 코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정인도 춤추게 합니다. 내 주변에 꼭 칭찬을 하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월간 〈교정〉을 통해 소개해 주세요.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칭찬의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드립니다.

참여 방법

- 사연은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주세요.
- QR코드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